

신수정(음대 59) 동문, 모국 총동창회 첫 여성 회장에 취임



“이타적 인재 길러낼 수 있도록 돕겠다”

제27대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에 신수정(기약 59-63)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가 취임했다. 1969년 본회 창립 이후 탄생한 첫 여성 회장이다. 본회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 겸 제20회 관악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추대 위원회의 추대에 따라 신수정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수정 신임 회장은 모교 음대에 수석 입학해 피아노를 전공하고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다. 26세에 모교 역사상 최연소 교수로 임용됐으며 2005년 음대 첫 여성 학장을 지냈다.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하며 현대차 정몽구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총동창회 관악대상운영위원, 부회장을 비

롯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음악대학동창회장을 역임하면서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도 헌신해왔다. 부친 고 신집호(행대원64졸) 동문, 모친 김석태(경성사범 39졸) 동문을 비롯해 여동생 신수희(회화 62-66) 동문과 제부 배순훈(기계공학 61-66) 동문, 남동생 신영수(전기공학 66-70) 동문, 모교 입학 후 MIT로 유학한 신철수(전자공학 68입) 동문까지 서울대 가족을 이룬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 회장은 이날 수락 연설을 통해 “제가 선임된 것은 저의 능력 때문이라기보다 앞서가는 서울대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의미로 생각된다”며 “우리가 사랑하는 모교 서울대가 ‘아카데미 엑셀런스’로 더 큰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총동창회보, 기사: 박수진 기자]

신수정 신임 회장 취임사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1969년 설립돼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26대에 걸쳐 여덟 분의 회장님들께서 총동창회를 너무나도 잘 끌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40만 동문들의 우애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 동문조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 위에 제가 27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참으로

큰 영광이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교단에서 봉직하신 교육자셨습니다. 저도 모교를 졸업한 이후 예술인이자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획일성보다 다양함이, 원만함보다 창조성이 더 중요해진 현대사회에 적합한 인재들을 양성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대학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낙인 총장 미네소타 동문회 방문



지난 4월 26일, 모교 성낙인 총장의 미네소타 동창회 동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미네소타주 3M 본사에서 진행된 Nobel Prize Inspiration Initiative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 후 미네소타 대학 총장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모교 성낙인 총장과 미네소타 동문과의 만찬과 대화 행사가 University of Minnesota 캠퍼스에 위치한 McNamara Alumni Center에서 시작되었다. 간단한 다과와 음료로 시작된 Social Hour에서 성낙인 총장과 미네소타 동문들의 담화로 훈훈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후 황효숙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미네소타 동창회에서 준비한 만찬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만찬에 이어 성낙인 총

장의 “미래 한국과 선한 인재”에 관한 열띤 강연이 이어졌다. 성낙인 총장은 이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을 둘러싼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과 그에 따른 선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서울대학교의 노력, 그리고 학교의 발전을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전달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미네소타 동창회 동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명강연을 해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 미네소타 동문들의 열띤 질의와 응답을 통한 대화의 시간을 마지막으로 짧고 아쉬웠던 총장과 만남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먼 곳 미네소타까지 와서 동문들을 만나고 좋은 추억을 남겨준 성낙인 총장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기사: 양한승 총무] >> 8면 사진 참조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격적인 품격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대의 무한경쟁시대에 모든 타인을 경쟁상대가 아닌 이타적 인격과 점점 행복해질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에 힘을 보태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으로서 발전해 온 것은 여러 동문들의 성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총동창회장으로 모교와 동문, 후배를 잇는 가교가 되어,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후배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동문들에게 자랑이 되는 총동창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이항렬 (법대 57)

논설 위원장

미북 정상회담의 동상이몽(同床異夢)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종전 선언과 비핵화의 의지가 담긴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평화 협정 체결에 대해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5월이나 6월에 열릴 미북 정상회담은 비핵화의 최종 열쇠를 가진 미국과 북한 또한 중국도 배후에서 조정할 것 같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정상 회담의 결과 만을 놓고 보면 놀랄 만한 성과가 없었지만, 남북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를 놓은 것은 사실이다. 이번 회담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김정은이 방명록에 쓴 것처럼 "새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으나 회의의 궁극적 목적인 비핵화(Denuclearization)에 대한 정의조차 남북이 서로 다르며 한반도에서 어떻게, 언제 비핵화를 한다는 것에는 일언반구도 없다. 특히 문 대통령과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지 않았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한반도에 처음으로 평화의 기운이 떠오르고 있다고 많은 희망을 부풀리고 있다. 물론 몇 달 전 전운이 감돌던 시기에 비교하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비핵화 선언에 기대가 커지면 이 목표 달성이 실패할 때는 실망이 커지고 한반도의 사태가 더욱 위험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정상회담의 가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의 정상회담을 보면 이번에도 북한은 달성할 수도 없는 평화 공세를 또다시 재개할 것 같으며 만약 남한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1953년의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발전시키자고 요구할 것이다. 그다음 단계는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 군인을 철수하여야 된다는 조건을 제안 할 것이다. 그들의 궁극적 통일 목표는 남한정부를 없애고 사회민주주의라는 기치 밑에 김 씨 왕가가 한반도를 통치하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통일 전략은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시작하였으며 북한 헌법에서도 "통일은 가장 중요한 국가의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에 사용되었다. 간혹 남한에서 북한에 강경책을 쓰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그들은 연평도 폭격, 천안암 침몰 같은 테러의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런 공포와 희망의 악순환 속에서 북한 문제로 남한은 보수 진보로 분열되었으며 현재 집권 정부인 진보진영은 그들이 믿는 '햇볕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 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가까이 초청을 받아들였다. 동기는 그들의 경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 때문에 타격이 있었으며 또한 미친 듯이 실험한 대륙탄도미사일도 완성했으며 핵폭탄도 미국의 위협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 수습 개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평화 공세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진영의 공세도 완화시키고 그 대가로 경제원조와 에너지 지원을 받아 북한경제를 향상하려는 것이다. 아무리 강한 독재자들도 연 3000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지탱하는 가난한 국민들을 계속 다스리기는 힘들다. 김일성이 50년 전에 약속하였던 쌀밥과 고깃국도 시민들에

게 가끔 먹여야 독재 왕조가 계속 버틸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평화 협정으로 그들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Fait accompli)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중국이 처음 핵무기 소유를 인정받았던 경우가 좋은 예다.

남한의 경우 문 대통령도 그의 추종자들이 남북 화해와 햇볕정책의 재현을 원하므로 이전 정치 상황에서 다시 북에 대해 화해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남한은 다행히 북한에 "화염과 분노 (Fire and Fury)"로 강경책을 사용하였던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정상 회담을 찬성함으로써 그가 한반도에 평화를 달성시켰다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잡을 수 있었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갑자기 북미 정상 회담 개최를 찬성하였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Muller의 특별 조사단"이 그 러시아와 결탁하여 미국 대통령 선거를 조작하지 않았나 라는 조사가 가장 마음에 걸리며 한반도 문제로 미국의 조사와 여론이 다른 문제로 쓸리는 것을 절대 환영할 것이다. 한 달 전에 남한 국정원 원장이 미국 안보팀

에게 북한 방문 설명을 하는 중에 갑자기 그들을 짐부실로 불러 김정은의 정상 회담 제안을 충동적(Impulsive)으로 수락하였다. 그는 과거에 북한과의 외교 회담을 시간 낭비라고 일축하였던 태도를 180도 바꿔서 남북회담을 칭찬하며 마치 자기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압력 때문에 남북 회담이 성사되었으며 그의 추종자들은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제안에 찬성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그의 트위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였으며 핵폭탄 실험 장소와 실험을 폐기하기로 하였다."라고 보도하였으며 마치 한반도에 65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가 성취된 것처럼 과장하여 선전하고 있다. 김정은도 이런 선전에 뒤질세라 이번 정상 회담은 북한의 성공적인 미사일 실험과 핵폭탄의 과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수락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한편, 이런 아전인수적인 해석은 결국 "동상이몽"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남한 문 대통령도 자기의 외교 재능과 교섭 때문에 평화가 한국에 오게

되었으며 이제부터 한반도 문제에 한국이 운전자로 핵 문제와 통일 문제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부 본인들 때문에 한반도에서 극적인 협상으로 본인들 주장이 승리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데 이런 허망한 꿈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달성이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는 비판론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김정은이나 트럼프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각정이 더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협상에 있어서나 제로섬(zero sum) 게임을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좌우명이다. 즉, 어떤 협상에 있어서나 두 양편이 이익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경우는 현재 34세의 젊은 나이로 절대 독재자로 몇 년을 군림하였으니 자기 생각 만이 옳다고 믿을 것이다. 이런 자가당착, 자기 제일주의자들이 어떻게 평화 협상을 할지 큰 의문이다. 벌써 트럼프는 북한이 전 핵무기를 파괴하지 않으면 계속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며 북한이 말을 듣지 않으면 회의장에서 걸어 나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에 인간적인 도움을 핵 폐기와 관계없이 점차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내놓았다. 이런 상황과 여건 하에서 성공적인 회담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무척 낮다. 어떤 정치 평론가들은 이번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 회담이 성공하면 이것은 닉슨(Nixon)이 모택동과 북경 회담에서 세계 역사를 바꿔 놓은 것과 비교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을 보았다. 닉슨과 모택동의 회담 성공은 3년간의 비밀 회동과 모든 준비 후에 결실을 본 것이며 그 성공의 배후에는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와 주은래 외상같은 명석한 두뇌의 외교관들과 노련한 관리(Veteran)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더욱이 당시 미국과 중국은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을 견제하기 위하여 결탁이 중요하였다.

이렇게 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부 본인들 때문에 한반도에서 극적인 협상으로 본인들 주장이 승리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데 이런 허망한 꿈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달성이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는 비판론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김정은이나 트럼프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각정이 더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협상에 있어서나 제로섬(zero sum) 게임을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좌우명이다. 즉, 어떤 협상에 있어서나 두 양편이 이익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경우는 현재 34세의 젊은 나이로 절대 독재자로 몇 년을 군림하였으니 자기 생각 만이 옳다고 믿을 것이다. 이런 자가당착, 자기 제일주의자들이 어떻게 평화 협상을 할지 큰 의문이다. 벌써 트럼프는 북한이 전 핵무기를 파괴하지 않으면 계속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며 북한이 말을 듣지 않으면 회의장에서 걸어 나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에 인간적인 도움을 핵 폐기와 관계없이 점차 시작겠다는 의사를 내놓았다. 이런 상황과 여건 하에서 성공적인 회담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무척 낮다. 어떤 정치 평론가들은 이번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 회담이 성공하면 이것은 닉슨(Nixon)이 모택동과 북경 회담에서 세계 역사를 바꿔 놓은 것과 비교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을 보았다. 닉슨과 모택동의 회담 성공은 3년간의 비밀 회동과 모든 준비 후에 결실을 본 것이며 그 성공의 배후에는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와 주은래 외상같은 명석한 두뇌의 외교관들과 노련한 관리(Veteran)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더욱이 당시 미국과 중국은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을 견제하기 위하여 결탁이 중요하였다.

이렇게 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부 본인들 때문에 한반도에서 극적인 협상으로 본인들 주장이 승리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데 이런 허망한 꿈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달성이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는 비판론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김정은이나 트럼프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각정이 더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협상에 있어서나 제로섬(zero sum) 게임을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좌우명이다. 즉, 어떤 협상에 있어서나 두 양편이 이익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경우는 현재 34세의 젊은 나이로 절대 독재자로 몇 년을 군림하였으니 자기 생각 만이 옳다고 믿을 것이다. 이런 자가당착, 자기 제일주의자들이 어떻게 평화 협상을 할지 큰 의문이다. 벌써 트럼프는 북한이 전 핵무기를 파괴하지 않으면 계속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며 북한이 말을 듣지 않으면 회의장에서 걸어 나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에 인간적인 도움을 핵 폐기와 관계없이 점차 시작겠다는 의사를 내놓았다. 이런 상황과 여건 하에서 성공적인 회담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무척 낮다. 어떤 정치 평론가들은 이번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 회담이 성공하면 이것은 닉슨(Nixon)이 모택동과 북경 회담에서 세계 역사를 바꿔 놓은 것과 비교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을 보았다. 닉슨과 모택동의 회담 성공은 3년간의 비밀 회동과 모든 준비 후에 결실을 본 것이며 그 성공의 배후에는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와 주은래 외상같은 명석한 두뇌의 외교관들과 노련한 관리(Veteran)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더욱이 당시 미국과 중국은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을 견제하기 위하여 결탁이 중요하였다.

이렇게 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부 본인들 때문에 한반도에서 극적인 협상으로 본인들 주장이 승리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데 이런 허망한 꿈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달성이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는 비판론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김정은이나 트럼프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각정이 더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협상에 있어서나 제로섬(zero sum) 게임을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좌우명이다. 즉, 어떤 협상에 있어서나 두 양편이 이익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경우는 현재 34세의 젊은 나이로 절대 독재자로 몇 년을 군림하였으니 자기 생각 만이 옳다고 믿을 것이다. 이런 자가당착, 자기 제일주의자들이 어떻게 평화 협상을 할지 큰 의문이다. 벌써 트럼프는 북한이 전 핵무기를 파괴하지 않으면 계속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며 북한이 말을 듣지 않으면 회의장에서 걸어 나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에 인간적인 도움을 핵 폐기와 관계없이 점차 시작겠다는 의사를 내놓았다. 이런 상황과 여건 하에서 성공적인 회담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무척 낮다. 어떤 정치 평론가들은 이번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 회담이 성공하면 이것은 닉슨(Nixon)이 모택동과 북경 회담에서 세계 역사를 바꿔 놓은 것과 비교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을 보았다. 닉슨과 모택동의 회담 성공은 3년간의 비밀 회동과 모든 준비 후에 결실을 본 것이며 그 성공의 배후에는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와 주은래 외상같은 명석한 두뇌의 외교관들과 노련한 관리(Veteran)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더욱이 당시 미국과 중국은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을 견제하기 위하여 결탁이 중요하였다.

전 섀퍼드 대학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전 해군 한국정치학회 회장

목 차

-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등문 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1. 신수정(음대 59) 동문, 모국 총동창회 첫 여성 회장에 취임 / 성낙인 총장 미네소타 동문회 방문
2. 기고: 미북 정상회담의 동상이몽(同床異夢), 이항렬
3. 기고: “한반도의 통일은 가능한가?“, 이채진 / 예술인 회장에게 거는 기대, 이선민
4. 기고: 주식시장 생태론, 정계훈 / 민주주의의 위기와 자본주의의 문제, 백 순
5. 기고: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이영욱
6. 기고: 서정화 전 회장 지난 4년간 돌아보니, 이상기
7. 기고: '자-덕-체'에서 '체-덕-지'로 가자, 정윤찬
8. 지부 소식: 미네소타 동문회 / 워싱턴 주 동창회
9. 서울대 발전기금 기부자 초청 만찬
10. 동문동정: 김중을 동문 회고록 출간 / 송근숙 동문 공로상 수상 / 김지영 동문 출판기념회
11. 동문 문단, 조만연 / 조옥동
12. 기고: 아마존 공룡의 미래 상상도, 강신용 / 서울 메디칼 그룹 담병원 오픈 하우스 행사 / 재갈소망 열연
13. 미주 동창회 제27차 전국 평의회 회의 일정
14. 남가주 총동창회 전 23대 회장 박석훈(농대 59) 동문 인터뷰
15. 기고: 세컨드 오피니언, 이원영 / 우리는 이민자다, 이종호
16. 미국속의 나의 발자취: <LA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 이영송 (재대 63) 이사장

17. 기고: 작은 인연, 천양국
18. 기고: 임종식(의대 51) 교수의 저서 'A Virus Hunter'를 읽고, 서윤석 / 祝祭의 꿈, 김기형
19. 기고: 꿈, 환상, 그리고 착각: 시각 인식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의 현 주소, 최중현
20. 기고: 완장찬 대학가, 정태영
21. 기고: 필 벅과 한국, 서울대인, 최종고 / 학림다방과 마리오네트 그리고 백자창아리, 이경희
22. 기고: 은막계에서 출세한 '세기의 성대' 마리오 란자 (Mario Lanza), 한수웅
23. 기고: 강기동 박사와 한국 반도체, 그리고 대한민국, 소강표
24. 기고: 가난한 대학생의 꿈, 조희유
25. 후원금 집계
26. 동창회비 집계
27. 동창회비 집계
28. 미주 동문 업소록
29. 미주 동문 업소록
30. 제14대 미주 동창회 집행부 조직도, 2017 미주 지역 동창회 회장단 명단
31. 광고
32. 광고



이채진 (문리 55)

“한반도의 통일은 가능한가?”

제27차 평의원 회의 강연 주제

지금 우리들은 우리 민족의 긴 역사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기로를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만일 한반도의 남과 북에 갈라져 있는 7천 5백만 국민들과 해외 각지에 흩어져 있는 750만 동포들이 모든 지혜 과 능력을 결집하여 현재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민족통일을 촉진할 수 있다면 자랑스럽고 희망에 찬 역사적 위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 출신 시인 George Santayana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반복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라고 한 명언은 잘 알려져 있다.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E.H.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라고 정의했다. 나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를 넘어서 미래와도 대화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민족의 특수성은 무엇이며 왜 나라를 잃고 분단의 아픔을 감수했으며 625 전쟁을 통해서도 한반도의 통일을 성취할 수가 없었던 가라는 역사적 문제를 재평가하고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 사이에 채택된 일련의 합의문이 왜 안 지켜지고 있는지를 고러한 후,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토의 하고자 한다. 특히 흡수



이선민 (인문 80)

예술인 회장에게 거는 기대

지난달 13일 총동창회로부터 신임 총동창회장에 신수정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가 추대됐다는 보도자료를 받았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똥뿔이다”는 것이었다. 필자뿐 아니라 그 날 보도자료를 함께 받았던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같은 느낌이었다고 한다. 4년 동안 책임하신 서정화 총동창회장의 후임은 당연히 '70대 남자 동문' 중에서 선임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 조건에 맞는 몇몇 분들이 물망에 올랐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도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오랫동안 남성 중심성에 운영돼 온 서울대총동창회가 50년 만에 첫 여성 회장을 선임한 것은 파격(破格)으로 받아 들여지기에 충분했다. 다음날 아침 발행된 신문들이 서울대총동창회장 추대 소식을 전하

제27차 평의원 회의에 초대합니다.



존경하는 서울대 미주 동창회 평의원님: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27차 평의원 회의가 오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보스톤(Crowne Plaza Boston-Natick)에서 열립니다. 이메일이나 회보의 홍보를 통해서 이미 통보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금년의 평의원 회의는 15일의 특별 강연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강연은 이채진(문리대 55) 교수님의 '한반도 통일은 가능한가?'입니다. 이채진 교수는 한반도 연구를 평생 하시었으며, 이를 정리하셔서 이번에 발표를 합니다. 두 번째 강사님은 현 대한민국의 정당한 민족적 통찰,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국강병 정책, 선린 균형외교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개발해야 한다. 청사진 개발의 연구를 위하여 서울대 동창회가 주도해 주길 바랍니다.

[이채진: 모교 정치학과 학사, UCLA 정치학박사학위 취득, 현재 클레어몬트 맥키나대학 석좌교수 및 명예교수, 'A Troubled Peace: U.S. Policy and the Two Koreas' 등 다수의 저작 과 80여편의 학술 논문을 출판, 한국통일연구원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초빙교수, 국립외교원 초빙교수, 통일협회회장, Korea Foundation 자문위원, 미국사회과학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 클레어몬트 맥키나대학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장 등 역임]

평의원 회의는 미주 동창회의 1년간 활동과 재정 보고를 들으시는 귀중한 시간이며, 지난해 여러분께서 설립한 “SNUAUSA Century FOUNDATION”을 계속 토의하게 됩니다.

16일 토요일 저녁에 갖게 되는 평의원 환영 만찬에서는 추종광(약대 60) 교수님의 기조연설이 있고 곧이어서 평의원 회의의 행사에 처음 참여하는 서울 음대 대학원 국악팀의 연주를 감상하시게 됩니다.

부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셔서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백년대계를 의논하시고 전 지역에서 참석하시는 동문과 돈독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장 윤상래 드림

>> 13편 안내 참조

제27차 평의원 회의 기조 연설자

	Title: The Big Picture (Future of the USA)
주중광 (약대 60)	Profile: CK (David) Chu, Ph.D. Drug Discovery Group The University of Georgia College of Pharmacy, Athens, GA 30602 Tel. 706-542-5379; Fax 706-542-5381 Email:dchu@uga.edu Group website: http://128.192.159.26/main/home/chugroup/

회상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피아니스트이며 서울대 역사상 최연소(26세) 교수, 음대 첫 여성 학장을 역임했고 예술인 회원, 현대차 정몽구재단 이사장으로 사회 활동도 활발한 신수정 총동창회장은 이런 요구에 딱 맞다고 할 수 있다.

총동창회는 그동안 임광수-서정화 두 전임 회장의 지도 아래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탄탄하게 갖추었다. 임광수 회장 재임기간에는 현대식 총동창회관 건물을 건립했고, 서정화 회장 재임기간에는 총동창신문과 총동창회 운영 시스템을 혁신했

다. 총동창회가 서울대학교의 '개혁(開學) 연도 규명을 통해 뿌리 찾기를 주도했고, 역사연구 기록단 건립을 지원하는 등 모교와의 유대도 한층 깊어졌다. 신수정 총동창회장은 이런 성취를 토대로 동문 상호간, 또 모교와 동창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할 것을 다짐했다. 총동창회의 엄숙한 분위기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동문들은 여성 예술인 회장이 보여줄 '부드러운 리더십'에 자못 기대가 크다.

[출처: 총동창회보, 조선일보 선임기자, 총동창회보 논설위원]



정계훈 (문리 55)

주식시장 생태론

지난 10여 년 동안 상승장구하던 주가지수가 최근에 심한 파동을 치고 있다. 이러한 주식시장을 효과적으로 접근하려면 주가 변동의 원인을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지수와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상호적 관계를 유지했지만 1980년대 이후로 주가 변동이 GDP 보다는 기업 이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간 GDP 성장률이 역사적 평균치 3%보다 훨씬 낮은 1.9%이고 실업률이 6.9%이었을 때과 과거에 년평균 7.5%로 증가하던 기업 수익이 최근에는 18.5%로 증가하면서 주가도 상승했다.

우선 80년대 후 주가가 급상승했던 이유를 검토해 보자. 첫째는 미국 기업의 국제화이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기업 국제화는 미국제품을 해외로 수출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생산기능을 중국과 같은 저임금 나라에 의존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 생산기능의 기술화이다. 미국 경제가 1980년대 이후로 정보기술(IT) 과 인공지능(AI)을 토대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기업 생산성이 무제한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생산과 서비스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 부의 창출이 노동보다는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높은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 셋째, 법인세 감소로 수익률이 개선될 것이다. 법인세가 35%에서 21%로 감소되니 총 이익금의 14%가 기업 수익으로 간주되어 주가에 반영 될 것이다. 넷째, 감세 정책에 따라 외국에서 환원되는 자금을 자사주 구입에 투입하여 주식당 수익을 높인다.

또 다른 이유는 주식 수요가 공급량을 추월 한다는 것이다. 미국인의 반수 이상이 주식을 직접 거래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주식 투자회사, 보험회사와 투자신탁 회사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의 총투자자산이 17조 달러가 되는데 이러한 자산을 9,500 Mutual funds 와 거의 5,000이나 되는 ETFs (Exchange Traded Funds)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주식양 공급은 날로 축소되고 있어 주가가 상승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1996년에 8천여개 회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4천여개로 감소되었다. 그 이유로는 파산, 흡수, 합병, 주식회사 사립화, 신규상장 회피 등이다. 또 많은 회사들은 주가를 보호하거나 높히는 수단으로 자사 주를 구입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 되는 주식 양이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진 증권시장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증권 시장 주변에는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경제가 활발해 지면서 물가가 상승함을 우려하는 연방은행이 금리 인상을 조금씩 단행하여 시장수요와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로 기업 수익과 주가가 하락함과 동시에 투자 자산이 채권시장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감세, 기간산업투자자와 국방비 증가 등으로 시장수요가 확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금리 인상은 채무비용 증가로 물가 상승을 자극 할 수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정책이다. 미국은 그간 누적된 무역역자를 축소하기 위해 철광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를 높히고 또 무역역자를 초래했던 나라들과의 무역 협정을 수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호무역정책으로 국내 고용률이 개선될지 모르지만 물가가 상승 할 것이다. 이 시기에 연방은행이 물가 통제 방안으로 금리를 올리면 70년대에 체험했던 불황 고가(Stagflation) 시대를 반복 할 것이다. 또 배타적인 이민 정책으로 노동계층 이민자를 배척하면 육체 노동이 필요한 농장이나 식당과 같은 업종에 종사할 인력 부족으로 물가가 상승 할 수 있다.

셋째, IT 와 AI를 위주로 하는 기술혁명때로는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지적재산 도난, 사이버 전산망 교란 등으로 기업 활동이 마비되면 경제 성장 현실은 물론 주가도 하락할 것이다. 또, 기술 혁명에 따른 생산성 개선으로 노동 수요가 극감하면 실업 상태가 사회문제로 대두 할 수 있다. 실업 문제로 사회가 불안정 해지면 주식시장도 불안정해질 것이다. 이외에도 정치 환경이나 북핵 문제 등이 악화되면 경제 활동과 증권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다.

위와같은 주가변동의 원인을 인지하면서 투자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행이도 미국기업들이 이러한 혼란스런 기업 환경에서도 기업의 국제화와 기술 발전으로 기업 생산성과 수익 창출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할 때과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주가 변동은 보면 대략 10여년 간격으로 (1990, 2001, 2008, 2018) 주가 하락을 체험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가 상승할때 주식을 구입하고 하락할때 판매하여 손실을 본다. 물론 가망이 없는 주식은 시급히 정리하여 손실을 감소해야 하지만 건전한 주식은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반대로 재무전문가들은 주가가 급상승



백 순 (법대 58)

논설 위원

1930년대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가 민주주의 제도를 건립해 왔고 제창하고 있지만 20세기 후반부터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하버드 대학 정치학 교수인 야샤 마운크(Yascha Mounk)는 그의 저서 '국민대 민주주의: 왜 우리의 자유는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The People vs. Democracy: Why Our Freedom is in Danger and How to Save It, 2018)에서 민주주의로 제창되는 국가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유 민주주의가 변질하게 되고 위기를 맞게 되면, 비민주적 자유주의는 독재주의로, 그리고 비자유적 민주주의는 파시즘으로 발전, 전략할 가능성이 있음에 세계의 정치계와 경제계가 심각하게 우려 ”

강한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나라들, 즉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 러시아, 터키, 이집트 등의 국가들이 그의 좋은 예이다.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2개의 기본 축을 갖추고 있다. 하나의 축은 개인의 자유(권리)이고 둘의 축은 국민의 정치 권력이다. 20세기 3/4 분기까지는 그래 두 2개의 기본 축을 동시에 갖춘 자유 민주주의가 유지됐으나, 근래에는 2개의 기본 축이 상호 격돌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를 현저하게 들어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창하지만, 국민의 정치 권력이 상실된 비민주적 자유주의(Undemocratic Liberalism)와 반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무시당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비자유적

할 때 일부 주식을 처리하여 이윤을 보호한다 주가가 예상외로 하락할 때 건전한 주식을 할 것으로 구입한다. 기업경영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 능력이 부족한 아마추어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배당금 지불 주식 (예를들어, AAPL, JNJ, MCD, MSFT, UNH, WMT) 을 주기적으로 구입하거나 주식거래소를 대표하는 ETFs (DIA, SPY, QQQ)등에 투자하여 자금 증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투자 위험을 우려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 가격이 상승하는 Inverse ETFs (SH, SDS, SQQQ, UVMY) 를 구

민주주의의 위기와 자본주의의 문제

민주주의 (Illiberal Democracy) 가 상호 대치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이다.

비민주적 자유주의를 민주주의라고 부르짖으며 이끌고 나아 가는 집단은 자유 엘리트(Liberal Elites) 그룹으로서 그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이름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서 국민을 그에 참여시키지 않고 배제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민 문제를 다루는 유럽 연합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반하여 비자유적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집단은 포퓰리스트 (Populists)로서 국

민의 이름으로 그들 집단이 바라는 정책을 개인의 자유나 권리와는 상관없이 추구해 나가는 민주주의다. 러시아나 터키나 이집트 등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어이하여 자유 민주주의가 쇠퇴해 가고 있는지, 아니 자유 민주주의 2개 기본 축이 서로 격돌하면서 자유 민주주의가 변질하여 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탐구해 보기로 한다.

그 원인을 자유 민주주의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경제 제도인 자본주의가 간직하고 있는 문제에서 찾아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본주의의 기본 분야인 생산, 시장, 분배 등 3분야에 20세기 후반 이

입하여 손실을 축소하는 방법도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는 1980년대 이후 기업의 국제화와 기술화로 기업 생산성과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주가도 지속적인 지불 주식 (예를들어, AAPL, JNJ, MCD, MSFT, UNH, WMT) 을 주기적으로 구입하거나 주식거래소를 대표하는 ETFs (DIA, SPY, QQQ)등에 투자하여 자금 증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투자 위험을 우려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 가격이 상승하는 Inverse ETFs (SH, SDS, SQQQ, UVMY) 를 구

국제경영전략 명예교수 (VA)



이영목 (공대 58)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한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박상현 공대 동문이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을 읽었다. 나는 그 글의 구절을 하나하나 따질 마음이 없다. 그런데 좀 건방지다고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내심 '또 그 타령이냐'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이제는 우리가 사상, 철학, 경제, 정치관에 통상적 이라 할까 아니면 구세대적인 선입관이라 할까 하는 것을 갖고, 왜 그런 선입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막연하게 그리고 당연하고 생각하며 무심히 넘겼던 사고의 덩어리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특히 나의 70 세 세대를 중에서도 더더욱 일찍이 미국에 와서 정착한 분들이 자기의 고정된 관념을 한번 돌보는 차원에서 더 그리 해야 할 것 같다.

우리 좀 동편지같지만 한 번 왜? 하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단어를 이제 한두 개를 음미해 보자. 약 광고를 보자면 "동의보감에서 보듯이.이윤은 한다" 이 말은 지금 MRI 까지 갖추고 한의학학을 연구하고 있는 한의 대학교의 교수나 연구자들이 수백 수천이 넘는데 그분들의 어느 누구도 아직도 몇 백년 전 동의보감의 저자 허균보다 못하다는 뜻인 것 같다.

또 공방집 간판을 보면 원조 할매 공방집을 운영하는 것들이 많다. 이 공방 하나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이 식재료도 우수하고 또 풍부하고 주방기구도 훨씬 좋아지고 소위 전문교육을 받은 요리사도 많은데 옛날 할매가 끓인 공방보다 더 맛있는 공방집이 없다는 말이지?

그리면서 나는 박정희 산업화 신화에 매몰된 70대분들에게 다음의 숫자를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권하고 싶다. 아래 표가 대충 10년 간격으로 국민소득의 향상 추이이다

1960 박정희 집권 초기 \$79

후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났으며 어떠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자본주의가 비민주적 자유주의를 조장하는 자유 엘리트를 만들어 내는지, 또한 자본주의가 비자유적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포퓰리스트들을 형성해 내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생산에서의 문제는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과 사회 미디어기술 (Social-media Technology)의 개발이 경제 성장을 결과하지만, 사회 미디어 관리자들이 자유적 엘리트가 되고, 사회 미디어 참여자들이 포퓰리스트들이 된다는 현상이다.

1970	박정희 집권 첫 10년	\$254
1980	박정희 집권 다음 10년	\$1,645
1990	전두환 집권 10년	\$6,174
2000	노태우/김영삼 집권 10년	\$10,841
2010	김대중/노무현 집권 10년	\$24,696
2018	이명박/박근혜 집권 8년	\$30,000

나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시동을 건 것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집권 20년 동안 절대치에서는 그분이 약

“미래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념의 덩어리를 깨는 것이 미래 창조일 것이다.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주인공들이 장년, 청년들이 그 미래를 창조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사고의 늪에서 벗어나라고 메시지를 띄우고 있다.”

\$1,500 향상시켰는데 그 이후 약 30년 동안 거의 2만 8천 불의 소득 증대를 이루어 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어느 대통령이 나 어느 정권이 뛰어난 경제 정책을 세우고 밀고 나가서가 아니라 온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 사후 개개인의 다양성, 창의성, 자기 발전의 부단한 노력, 자기 성취를 위하여 정진하며 도전 등 끊임없는 자기 노력으로 일구워 냈다는 사실과 그들이 이루어 낸 그 업적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 냈다는 소위 박정희 신화를 넘었다는 사실을 숫자가 말해 주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신화의 대상이 아니라 30년 동안의 모든 한국인들이 신화의 대상이어야 한다면 어떨까?

내가 장황스럽게 이러한 숫자를 나열하면

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평균나이 40 세도 못 되던 시대의 한의학보다 지금의 한의학이 훨씬 발전됐고, 할매 공방보다 더 맛있는 공방 음식점이 즐비하고, 박정희 시대보다 더 공부하는 많이 했고,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더 많은 경험을 쌓은 전문 과학자, 전문 경영인들이 차고도 넘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이 3만 불 세대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그들에게 과거에서 미래의 방향을 찾는다면 병인양요, 위정척사, 설패정책 운운하며 오늘날이 또 그렇다고 하는 담론에 그들이 귀를 기울일까? 아닐 것이다. 그러한 단어들은 다만 그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공허하고 방향이 없는 산울림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박 동문의 글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나는 짐작할 수 있다. 그분의 걱정은 현 정부를 이끄는 집단의 대부분이 민주화를 이룬 소위 386세대들로서 그들이 산업화를 시작하고 이룩한 60, 70의

간에도 젊은 세대들은 지금 알파 로봇과 바둑을 두어서 이길 방법을 찾기 바쁘며, 무인수퍼마켓 설계와 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에 바쁘며, 의사를 대신할 로봇 만들기에 바쁘다. 그리고 경영인들은 화면에 비친 세계 지도를 보면서 어디에서 무슨 장사를 할까 골똘히 생각하고 있거나, 달나라 땅을 분양해서 돈 벌 골리로 바블 것이다.

나는 이번 동계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세대와 달리 통일이니 뭐니 하며 나타난 북한의 미녀(?) 응원단에 시큰둥하고, 통일이란 단어가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있었던 거성세대와 달리 여자 남북 아이스하키팀 결승으로 탈락한 선수 때문에 화를 내던 그들, 입장식에서 전 세계 스포츠인들과 같이 오빠는 강남스타일의 말 춤을 추도록 리드하던 싸이, 이름도 없어 보이는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도 하고 또 따거나 못 따거나 상관없이 그저 세계 축제가 참가함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메달 따는 것만이 오로지 올림픽의 목표로 알고 살았던 우리 소위 60, 70대의 박정희 신화 세대 사람들, 그리고 50대의 소위 민주화 386세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제 우리가 참가하는 우리 동문들은 유지하고 남은 대결 구도와 사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면서 박 동문이 끝맺음으로 인용한 글에 대해서 나는 몇 마디를 덧붙이 고저 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

덧붙임

그런데 밝은 미래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념의 덩어리를 깨는 것이 미래의 창조일 것이다.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주인공들이 장년, 청년들이 그 미래를 창조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사고의 늪에서 벗어나라고 메시지를 띄우고 있다. 나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 그들의 사고가 우리에게 밝은 미래이다.

그러나 박 동문이 글을 쓰고 있었던 그 순

야샤 마운크는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비민주적 자유주의와 비자유적 민주주의의 투쟁이 앞으로 계속 더욱더 격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 밑에서 1997~2001년 동안 국무장관을 지낸 마드레인 올브라이트 (Madeleine Albright)는 최근 출간한 저서, '파시즘: 경고' (Fascism: A Warning, 2018)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독재주의 (Dictatorship)나 파시즘 (Fascism)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독재자들은 군중을 무서워하여 자기를 지켜 줄 호위병 집단 (Corps of Bodyguards)을 기르고, 파시스트들은 군중을 자기편으로 끌어 드려서 지

지하도록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어찌 보면, 자유 민주주의가 변질하게 되고 위기를 맞게 되면, 비민주적 자유주의는 독재주의로, 그리고 비자유적 민주주의는 파시즘으로 발전, 전략할 가능성이 있음에 세계의 정치계와 경제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와 자본주의의 문제가 오로지 선진국에서 만 우려하는 과제인지? 한국의 재벌 경제와 촛불집회가 한국의 앞날에 대한 걱정거리의 우선순위 목록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 미국 노동성 선임정책학자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교수

서울대총동창회 회장에 여성이 처음으로 취임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국내 주요대학에서도 최초 사례가 아닌가 싶다. 더욱이 새 회장은 음대학장 출신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난 달 중순 서울대총동창회 회장추대위원회에서 신수정(71억59-63)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가 회장에 선출된 소식이 발표된 후 동문 안팎의 몇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서정화 전 회장 지난 4년간 돌아보니

이상기 (서양사 81)
전 총동창회보 논설위원

섰다. 임광수 회장은 누구보다 총동창회를 아꼈던 분으로 기억될 것이다. 4년 전 필자를 비롯한 일부 언론계 동문들이 “너무 장기간집권 하는 것 아니냐.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라”며 퇴진을 권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용퇴를 결심하고 서정화 부회장을 후임으로 지명했다. 2014~2018년 서정화 회장의 재임 기간에도 적지않은 일들이 동창회를 통해 이뤄졌다. 그가 지난 4년간 이뤄낸 공적을 여기 적는 것은 후임 회장이 참고하길 바라는 마음과 전임에 대한 평가 없이 신입임에게만 쏠리는 시선과 기대, 나아가 찬양을 지양할 때가 됐다는 생각에서다.

“회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회장추대위원회(회추위) 제도 신설”

“비서울대 출신 전문경영인에게 사무총장을 맡겨 사무처를 총괄”

“서울대총동창회가 ‘공익적 친목단체’로 자리매김”

필자는 이 글을 쓰기 위해 총동창신문 김남주 편집장에게 자료를 요청했다. 그는 필자가 발행하는 온라인 국영어잡어 ‘아시아 앤드 월간 ‘매거진N’에서 기자로 3년간 일한 적이 있다. 그 사이 그가 쓴 기사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내가 그에게 자료를 요청한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다. 그에게 자료를 받은 후 필자는 관련 사항들을 총동창신문 사이트를 찾아 참고하고 필자의 기억들을 되살려 사실관계를 확인해갔다. 물론 그가 필자에게 준 자료는 이 글 전체의 맥락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또 원고가 작성되는 과정을 굳이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다.

우선 지난 4년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회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고 회장추대위원회(회추위)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취지는 이렇다. “서울대 출신 중에 동창회장을 할 만한 인재가 꽤 많다. 혼자서 오랫동안 회장직에 있으면 다른 동문들의 기회를 그만큼 빼앗는 셈이 된다.” 그동안 회장은 전임 회장이 정하는 대로 결정됐다. 공정한 선출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선출된 신수정 새 회장이 세대별단과대별직능별 등 다소 제한적이거나 대표성을 지닌 회추위 제도에 의해 선출된 첫 사례가 된 셈이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비서울대 출신 전문경영인에게 사무총장을 맡겨 사무처를 총괄하도록 해 온 점이다. 육사 30기(70학번에 해당) 출신의 박승희(ACAD 50기 경영학

박사) 전 우리금융지주회사 전무가 바로 그다. 서정화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인 정리금융공사 사장이던 그의 업무자세를 기억했다가 사무총장을 맡겨 동창회 운영의 체계화에 주력하도록 했다.

서 회장 재임 동안 서울대총동창회가 ‘공익적 친목단체’로 자리매김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공익적 친목단체의 정의를 내린 이윤식 관악언론인회 회장(문화일보 논설주간)의 동창회보 기고문(2018년 1월호)을 인용한다.

“서울대총동창회는 ‘공익적 친목단체’다. 총

의 변화를 두 단어로 표현하면 ‘내실화와’ 체계화로 모아질 것이다. 물론 35억원을 넘어선 장학금과 해외동창회가 10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양적인 발전도 있었다. 해외지부의 경우 작년말 영국과 미얀마에도 동창회가 결성됐다. 미국을 비롯해 2014년 일본 중국, 2015년 인도네시아·호주·싱가포르·태국·베트남동창회가 결성됐다. 또 일본 도쿄 대와는 MOU를 맺어 매년 정기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베이징대, 하노이대 나아가 김일성대 등과도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

지난해의 장학금 지급액은 모두 35억원 규모로 재학생 1,300명이 학비 부담을 덜었다. 또 소득 2~5분위 가정의 장학생 115명과는 결연을 맺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와 진로상담 등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특별전시를 열고 행복기부콘서트를 여는 것도 지난 몇 년 사이에 생긴 일들이다. 서울대 마크가 새겨진 ‘기념와인’ 판매수익금 역시 후배들의 학업에 보탬이 되고 있다.

회비납부는 말은 쉬워도 실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연간 증가 규모가 2013년 630명에서 2017년 2,500명으로 늘었다. 이유는 그다지 먼 곳에 있지 않다. 정기총회, 홈커밍데이 등에 참석한 동문들에게 일일이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감사표시를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도 체계화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최근 몇 년 새 정기총회와 신년회 등 동창회 행사는 100% 예약제가 정착되고 있다. 이전엔 ‘노쇼’도, 현장에 와서 생떼를 쓰는 경우도 많았다. 노쇼 동문들에게는 확인 후 문자를 보내거나 두 번 이상 노쇼를 할 경우 초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조금 부끄러운 사례가 있다. 오랜 동안 홈커밍데이에서 한 동문이 여러 장의 경품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두 개 이상 심지어 3년 전엔 최고상인 자동차 경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확인 결과 다수의 경품권을 갖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반납받는 해프닝도 있었다. 물론 이같은 일들은 동창회 체계화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된 셈이다.

앞서 공익적 친목단체를 언급한 바, ‘국가발전’을 위한 서울대인 100인 위원회가 바로 그 범주에 든다.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서울대인의 영향력을 한데 모으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두차례 회의에서 통일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초기단계이지만 새 집행부가 이어가면 상당한 결과물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10여 년 전 동창신문 논설위원으로 참여하기 전에는 ‘동창회가 하는 일이 있긴 하나?’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이나 짓는 건 아닌가?’ 등등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많았다. 심지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대를 폐지하는 게 낫겠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생각은 내게서 모두 떠났다. 오히려 서울대와 서울대총동창회가 대한민국 나아가 인류의 발전에 긍정적이고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내실화와 체계화 모두 이뤄

지난 4년간 서정화 회장의 서울대총동창회



정운찬 (상대 66)

5월 가정의 달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5월을 풍요의 절기로 보아, 가정의 풍요를 축복하는 달로 삼았다. 덕분에 5월은 각종 축제의 절기이기도 하다. 또한 화창한 봄이 시작되면서 움츠렸던 대지의 만물이 소생하고 동시에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스포츠의 달이기도 하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은 유년시절이던 1870년 독일과의 전쟁에서 모국 프랑스가 쇠퇴하는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다. 20세에 영국으로 유학한 쿠베르탱은 청소년 교육의 중심이 스포츠에 있다는 것을 알고 크게 감명받는다. 그래서 당시 지식 전수에만 급급했던 프랑스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력단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정부로부터 외면받았다. 이를 계기로 그는 국제 올림픽위원회를 만들고, 1896년 제1회 올림픽 대회를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개최한다.

당시 만들어진 올림픽 정신은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Citius, Altius, Fortius)”로 집약된다. 하지만 쿠베르탱은 ‘입상도 중요하지만 참가에 더 뜻이 있다’는 철학을 강조했다. 올림픽이 엘리트 체육에만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고 일반 시민들이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발전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쿠베르탱의 모국 프랑스에서 우리는 오늘날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대학입학시험 바칼로레아(Baccalauréat)에 체육이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국어, 수학, 외국어와 똑같은 배정으로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도 한때 체력이 국력이라며 학교 체육을 강조하고 대학입학시험에서 체력장을 치른 적이 있었다. 체육 시간에 축구이건 스포츠볼이건 편을 나누고 포지션을 정해서 한바탕 경기를 하고 나면 체력과 단결심을

‘지·덕·체’에서 ‘체·덕·지’로 가자

기르고 책임감과 룰에 승복하는 일종의 준법정신을 배웠을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나 입시 부담도 잠시나마 따모로 배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에서 체육은 항상 후순위였다. 지육(智育), 덕육(德育), 체육(體育) 순이 전통적인 교육의 가치관이었다. 체육은 무시하고 오로지 학력만 중시한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체육시간이 자율 학습으로 대체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렸다. 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명제지만 입시지육, 학벌 사회에 사는 우리 현실에서는 가정과 학교 모두 체육의 중요성을 깨닫지

“... 교육이란 먼저, 스트레스가 과중한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길러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심신을 단련해야 한다.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입시과정과 교육과정에서 다양성을 강조하여 창의성을 제고해야 함은 그다음이다.”

처구나없는 일이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늘고 스포츠-레저 등이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서 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7세기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 의사인 존 로크(J. Locke)는 교육의 우선순위를 지(智)·덕(德)·체(體)가 아닌 체·덕·지로 보았다. 그가 쓴 교육에 관한 책을 보면 전체 24장 가운데 서장(序章)인 제1장이 신체의 건강에 관한 이야기다. 제2장부터 제19장까지는 습관, 상과

벌, 예절, 가정교육, 부친의 권위, 아이의 기질, 아이의 자유와 버릇없음, 울음, 겁 많음과 잔인한 행동, 호기심, 게으름, 일의 강제, 장난감, 거짓말과 변명, 덕성, 지혜, 예절교육 등을 서술했다. 그런 다음 제20장에 가서야 ‘비로소’ 학습에 대하여가 나와 로크는 교육의 우선순위가 지적체가 아니라 체·덕·지에 있음을 밝혔다. (로크의 <교육론>, 박혜원 역)

이 책은 전형적인 귀족 가정의 자녀들을 ‘신사(gentleman)’로 키우기 위한 자녀교육 지침서이지만, 현대 사회의 민주시민을 기르는 데에도 매우 유효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2002년 서울대 총장이 되었을 때 처음 찾아 읽은 책이 로크의 <교육론>이다. 1690년에 나온 책을 서울대 총장이 된 직후 읽은 이유는 교육이나 인성의 기본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믿음에서였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명제지만 입시지육, 학벌 사회에 사는 우리 현실에서는 가정과 학교 모두 체육의 중요성을 깨닫지

“... 교육이란 먼저, 스트레스가 과중한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길러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심신을 단련해야 한다.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입시과정과 교육과정에서 다양성을 강조하여 창의성을 제고해야 함은 그다음이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명제지만 입시지육, 학벌 사회에 사는 우리 현실에서는 가정과 학교 모두 체육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과거 한국경제가 외국을 추격할 때 고도성장의 주역은 과감한 투자로 대량 육성한 산업화 맞춤형 인재들이었다. 그러나 미래를 이끌 핵심 역량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핵심 인재들은 어떻게 길러내야 할까? 그 답은 바로 우수한 교육에 있다.

우수한 교육이란 먼저, 스트레스가 과중한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길러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심신을 단련해야 한다.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입시과정과 교육과정에서 다양성을 강조하여 창의성을 제고해야 함은 그다음이다.

체력은 타고난다고 하지만 노력에 의해서 향상될 수도 있다.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기도 했다. 내 체력이 조금 더 좋았더라면 훨씬 더 생산적인 교수,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 총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보기에 실제로 세계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가장 잘되어 있는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교육은 처음에 ‘체육’,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덕육’, 그다음에 또 여유가 있으면 ‘지육’의 순서로 한다. 존 로크 시대는 물론이지만 오늘날에도 영국에서는 일관되게 체육을 강조한다. 영국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크리켓이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작한다.

원저궁 근처에 있는 이른 칼리지에서는 전통적으로 23월 추운 날씨에도 학생들이 반바지·반소매를 입고 진흙 위에서 레슬링을 하였다. 한 번은 이른 칼리지 선생에게 학생들을 왜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러자 그분이 “이래야 인재가 나온다. 19세기 영국의 총리들은 거의 다 이른 칼리지 출신이었다. 그들은 모두 기골이 장대했었다.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는 그들이 만든 것이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며 신체가 허약한 사람들이 영국의 총리가 되더니 영국이 결국 세계 제1의 자리를 미국에 내주었다”는 진담 반 농담 반의 대답을 했다.

미국도 초중등 교육이나 대학교육에서 체육을 매우 중시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체육을 중시한다. 초중고에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렇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다 그렇다. 대한민국 교육도 이제 지·덕·체를 지양하고 체·덕·지로 가자.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우수한 교육이란 먼저, 스트레스가 과중한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미네소타 동문회 성낙인 총장 방문



황효숙 회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성낙인 총장



성낙인 총장의 강연을 경청하는 참석 동문



성낙인 총장 강연



미네소타 동문과 담소하는 성낙인 총장

서울대 미네소타 동문회
 회장: 황효숙
 651-308-0796 / sook@nano-dyne.com
 총무: 양한승
 hanseung.yang@gmail.com

워싱턴 주 동창회, 4월 SNU 포럼 개최



워싱턴주 동창회 시니어 클럽(회장 김재훈)이 주최하는 4월 SNU 포럼이 지난 14일 성황리에 열렸다. 레드몬드 소재 통신장비 회사인 주니 아메리카의 부사장인 허예랑(위 사진 오른쪽) 동문이 SNU 포럼에서 '이동통신 이야기'를 풀어냈다.

허 동문이 강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들고 사용했던 것으로 유명한 33cm 크기의 무선 전화기가 1980년대 초에 나와 1세대(1G) 이동통신의 시발이 되었다. 이어 10여년 정도 지난 1990년대 초 목소리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노키아폰, 그리고 삼성 애니콜 등이 나오면서 2G가 시작됐고, 2000년대 목소리와 문자는 물론 동영상과 사진을 보낼 수 있는 3G 시대가 개막했다.

이동통신이 아날로그를 벗어나 디지털로 전환됐고 한국이 이때부터 통신 강국으로 부상하게 됐다 고 허 박사는 설명했다. 2007년에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했다. 통상 4G LTE(Long Term evolution)로 불리는 이동통신 4세대는 2010년대에 등장했고, 이는 결정적으로 '목소리(Voice)마저도 데이터로 처리되는 기술이 핵심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이 바로 4G 기술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올해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세계 최초로 5G를 시도하는 성과를 이뤘다. 평창군 대관령 의자 마을에 5G 네트워크를 적용한 5G 마을인 '평창 5G 빌리지'를 꾸민 것이다. AR(증강현실) 360도 영상으로 전통시장을 둘러볼 수 있고 동작을 인식하는 게임을 설치해 마을 명소를 관광하는 등의 신기술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했다."

허 동문은 "5G는 속도가 기존보다 1,000배 빠르고, 안전하며, 사람과 기계는 물론 기계끼리도 연결된다"면서 "5G는 당초 2020년께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범 등을 거쳐 내년 중에 상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월 SNU 포럼은 12일 Bellevue Newport Way Library에서 열릴 예정이다. 초청강사인 장영태(전 홍익대 총장, 현 명예교수) 동문이 '체험과 문학- 괴테의 문학과 그의 연인들'라는 타이틀로 세미나를 할 예정이다.

다음은 장영태 동문이 밝힌 5월 세미나 개요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괴테(Johann Wolfgang Goethe, 1749-1832)는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입니다. 그는 "젊은 베르터의 고뇌", "파우스트", "빌헬름 마이스터", "친화력"을 비롯하여 수많은 서정시를 남겼습니다. 또한 "시와 진실", "에커만과의 대화", "이탈리아 여행기", "프랑스 중군기" 등 생생한 생애기록과 15,000통이 넘는 편지, 52년간에 걸친 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식물 변형론"이나 "색채론"은 그의 자연과학적 관찰과 탐구력을 증언해 주는 저작물입니다. 나아가 그는 26세에 바이마르 공국으로 초빙되어 공국의 정치와 행정에도 탁월한 공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괴테의 문학세계나 그의 사상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는 독일과 유럽에서 현재에도 여전히 매우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괴테는 자기의 문학이나 모든 사상이 체험을 떠나서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위 생의 철학을 제창한 독일의 철학자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는 그의 주저서 "체험과 문학"에서 "문학창작의 밑바탕에는 개인적인 체험, 처음 마주치는 상황에 대한 이해, 이념을 통한 체험의 확장과 심화가 놓여 있다"고 하면서 괴테를 그 증인의 한사람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삶에서 체험은 주로 인간관계로부터 얻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괴테의 많은 체험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감정과 상상(Phantasia)의 세계인 문학에서 사람을 만난 감동,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과 결별의 비애는 여느 시인에서 보다 괴테에게서 뚜렷이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체험들은 승화되어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문학, 특히 시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 체험이 보편적인 감정의 긴밀한 토대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젊은 베르터의 고뇌"는 23세의 괴테가 베를린에서 만났던 19세의 샤롯데 부포에 대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닙니다. 이 세미나에서 이러한 생생미학적인

관점에서 사를로테 폰 슈타인 부인, 릴리 헨네만 등 괴테의 시심을 불러일으킨 여인들에 대한 괴테의 관계를 시와 함께 읽어 보려고 합니다.

- 2018 SNU 포럼 발표 예정자:**
- ▶ 5월 - 장영태 박사(전 홍익대 총장, 독문학교수): 체험과 문학 - 괴테의 문학과 그의 연인들
 - ▶ 6월 - 강윤희 박사(국민대 교수, UW 교환교수): 구 소련연방 코카서스 3국(Georgia, Armenia, and Azerbaijan)의 현재와 미래
 - ▶ 7월 - 정재현 박사(UW 기계공학과): 나노 센서의 연구개발 현황과 응용분야
 - ▶ 8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Summer Picnic)
 - ▶ 9월 - TBD
 - ▶ 10월 - TBD
 - ▶ 11월 - TBD
 - ▶ 11월 (강의 및 중강 파티 장소) - TBD
 - ▶ 12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General Meeting and Year-End Party)

- 2019 SNU 포럼 발표 예정자:**
- ▶ 1월 - 박기웅 교수(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현대 영화산업의 첨단 영상 제작기술

본지는 워싱턴주 동창회 시니어 클럽(회장 김재훈)이 매월 주최하는 'SNU 포럼' 강연 내용을 사정이 허락하는 한 매월 동창회보 지면에 올리기로 했다. 다양한 분야의 유익한 내용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라 독자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첫 순서로 지난 1월에 개최되었던 최준현 박사의 "인공지능 연구 현황과 시각인식 능력(Artificial Intelligence for Visual Recognition)"이란 주제의 강연 내용을 본 회보 19페이지에 올린다. [편집자 주]



서울대 발전기금 기부자 초청 만찬

지난 4월 14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JJ Grand Hotel에서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 오찬 모임이 있었다. 이 행사 후에는 익명의 남가주 동문부부가 20만 달러를 서울대 후배 학생들을 위한 선한인재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황인규 서울대 부총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황인규(문리대 76, 부총장) 발전기금 부이사장과 주정훈 발전기금 출연예우팀장, 박근경 기금지원실장 등이 한국어에서 방문하였다. 또한 전 미주 총동창회장인 이병준(상대 59), 그리고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인 노명호(공대 61), 한중철(지대 62, 발전위원회 회장), 김병연(공대 68, 발전위원회 부회장), 성주경(상대 68, 발전위원), 김지영(사대 69, 발전위원), 서치원(공대 69, 발전위원), 김상찬(문리대 65, 발전위원) 등의 상임이사와 이만택(의대 54) 발전기금 미주재단 이사장, 박민식(수의대 65), 김현(의대 60), 정동규(공대 57), 강신용(사대 73) 남가주 총동창회장, 한귀희(미대 68) 남가주 수석 부회장, 그리고 윤상래(수의대 62) 미주동창회장, 백옥자(음대 71) 미주동창회 조직국장, 홍선례(음대 70, 발전위원) 미주동창회 문화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김인중(농대 74, 발전기금 미주재단 LA Office국장) 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황인규 부총장은 인사말에서, "미주 기부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서울대학교는 지식과 학문 탐구라는 대학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며, 명실공히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대학 평가기관 QS의 평가에서 2017년 36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세계 30위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주 기부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서울대학교가 있고, 서울대학교의 미래도 밝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울대학교는 국가와 사회공공체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선한인재 양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선한인재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 이외에도 매월 생활비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약 3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850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식당에서 '천원의 식사'를 도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결과를 창출하는 학문의 중심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이만택 발전기금 이사장의 인사말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모교를 위하여 기부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은 2017년까지 \$8,782,851(한화 96억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그중 \$5,092,000를 서울대 발전기금에 송금하였고 \$3,686,000은 투자하고 이 이익금 및 원금으로 매년 장학금 및 연구기금, 선한인재 장학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송금한 금액 중 수의대 병원 신축기금, 약학대학 건축기금, 서울대 도서관 건축기금, 의대 의학도서관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주재단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며, 여러분이 기부하신 기부금은 미주재단과 서울대 발전기금에 동시에 기록됩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기부인에게 감사 서신 또는 E-mail을 보내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부인에 대한 예우는 재정상 미주재단에서는 하지 못하고 서울대 발전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와의 협력과 유대는 아직 원만치 못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연 발전위원회 부회장에게 공로패 전달

동문의 생명보험 기증이 있고 동문의 유산 상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동문 고행화로 유산 기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동문의 직장이 있는 Gift Fund의 기부를 추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청안할수록, 이곳 미주동창회의 미래를 위해 따뜻한 눈길과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미



자녀 분들이 기부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부를 받으면 추천 자녀의 부모님 성함도 발표하고 예우하려고 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지원으로 금년 2018년에 모금 총액 \$10,000,000에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교가 세계대학 랭킹 20위 이내에 달성하려면 여러 동문님들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사랑하는 모교를 위하여 지원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윤상래 미주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미주재단 운영을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보고도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되, 동창회와 병행하여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미주재단에서 모금하는 기금을 미주에서도 명분있는 사업에 서울대의 이름으로 쓰도록 합니다."라고 말했다.



50만 달러를 기부한 김현 동문에게 감사패 증정

다음 강신용 남가주 총동창회장의 축사는 다음과 같다. "이곳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는 똑같은 마음을 가슴 속에 하나씩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대학교라는 노스텔지어입니다. 미국 이민 초창기에 수많은 고통과 수도모 어린시절 모교에서 갈고 닦은 학창 열기로, 지금 여러분들은 성공신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생활 수십년이 지나도 서울대학교를 사랑하는 애교심은 행복한 향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문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은 시간적으로 미래의 모교를 위해 천만불 가까이 모금하고 성장했습니다. 이제 청안할수록, 이곳 미주동창회의 미래를 위해 따뜻한 눈길과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미



이만택 발전기금 이사장에게 공로패 전달



윤상래 미주동창회장 축사



최혜성(음대 92) 동문 플룻 연주

주 총동창회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이 자랑스럽게 미국에서도 꽃피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근경 기금지원실장의 서울대 현황소개(슬라이드)가 있었다. 이어 황인규 부총장은 지난해 말 50만 달러를 기부한 김현 동문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고, 이만택 발전기금 이사장, 한중철 발전위원회 회장, 김병연 발전위원회 부회장 등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한중철 발전위원회 회장에게 공로패 전달

이어 오찬이 있었고, 축하연주로 이어졌다. 플룻 최혜성(음대 92) 동문이 연주한 "Francois Bome의 Carmen Fantasy"의 감미로운 선율은 모두를 황홀의 경지로 몰아 넣었다. 피아노 재갈소망(음대 02) 동문은 "George Gershwin의 Rhapsody in Blue"를 연주했는데, 역동적인 리듬이 특징인 이 곡을 섬세하고 깔끔하게 소화해 내었고, 그 박력있는 연주에 참석자들은 앵콜 박수로 환호하였다. 이어 단체사진 촬영으로 행사는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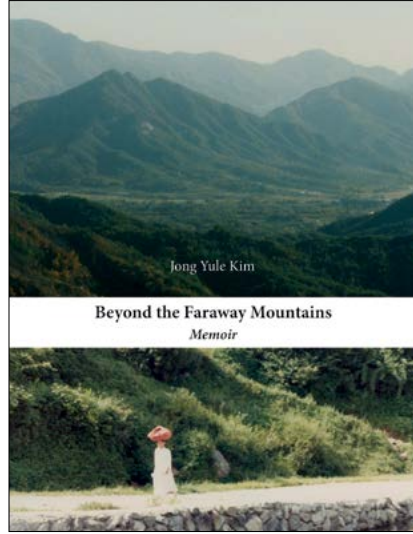
행사후 남가주 한 동문부부가 익명으로 후배 학생들의 식사비, 학비를 지원하는 선한인재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20만 달러 수표를 황인규 부총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이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사진 간호대 동문 5만 달러 기부를 약속했다. 황인규 부총장은 남가주 동문들의 헌신적인 기부에 감동해 목이 메인다고 동문들의 정성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홍선례 편집위원]

김중률 (사대 51, 교육학 Ed.D) 동문의 회고록 “Beyond the Faraway Mountains” 출판



김중률 (사대 51)



저자는 뉴욕 지부 동문회 24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1974년 Columbia University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 취득 후, 뉴욕 시장의 자문위원 및 미국, 한국 교육계에 오래 종사했다. 지금은 뉴욕 외곽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며, 수필가인 부인과 2자매 그리고 3명의 손주들을 두고 있다.

이 세위는 삶의 여정에 존경과 찬사를 보내며 감히 범하기 힘든 영역이란 생각도 들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후손들에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살아생전 해 볼만한 일이라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어서 집필했다고 한다. 출판 기념회는 6월 초로 계획 중이다. [기사제공: 신영남 부회장]

영문으로 집필된 회고록 서문에서, 그는 지난 팔십여 년의 세월이 마치도 한낱의 꿈을 꾸듯 지나갔다고 했다. 도서관에 비치된 많은 유명인들의 자서전을 읽으며, 그들

김지영(사대 69) 동문 출판기념회 개최 “그는 나의 아버지였다, 이다” 출판



지난 4월 17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작가의 집에서 김지영(사대 69, 전 총동창회장)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150여 명의 동문과 친지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책 제목은 <그는 나의 아버지였다, 이다>였다. 김지영 동문은 변호사이며 동시에 수필가이자,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이 행사는 이원영(사대 81) 사업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하진 재미수필가협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강신용(사대 73) 남가주 총동창회장의 축사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 “우리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한분 한분 만나보면 보석같이 귀한 동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오늘 멋지고 자랑스런 주빈공, 작가 김지영 동문이 계십니다. 철학과 감성이 수필문학이란 장르로 다함께 책장을 넘깁니다. 우리는 모두 외로운 존재입니다. 따뜻한 손길과 한마디가 그림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런 서울대 동문이 있어 든든합니다. 선배님 자랑스럽습니다!”

이여 하정아 수필가의 작품평이 있었고, 조만연(상대 58) 재미수필가협회 전 이사장이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다음은 저자가 그 날 출판기념회에서 강연한 내용을 보내 온 것이다. <다리 위에 살다> “1714년 7월 20일 정오, 페루에서 가장 잘 만든 다리가 끊어졌다. <산루이스레이의 다리(The Bridge of San Luis Rey)>라는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손튼 와일더(Thornton Wilder)가 1927년에 쓴 소설입니다. 이 다리는 리마에서 쿠스코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잉카인들이 넝쿨들을 정교하게 꼬고 짜서 만든 다리입니다. 백여년을 잘 버틴 출렁다리입니다. 딸에게 버림받은 리마의 귀족부인 그리고 하녀, 쌍둥이 형제의 죽음으로 제 정신이 아닌 남자, 인기여배우를 키워낸 연극감독과 그 여배우의 아들... 다섯사람이 한발, 한시, 같은 곳에서, 같은 사고로 이생을 마감합니다. 다리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던 카톨릭 신부 아리문을 갖습니다.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

송근숙 (간호 66) 동문 공로상 수상 ‘라티노센터 온 에이징(Latino Center on Aging-LCA)’ 올해의 수상자



송근숙 (간호 66)

뉴욕시립대(CUNY) 헌터 칼리지 간호대 교수인 송근숙 (간호 66) 동문이 히스패닉 노인 복지 교육 단체인 라티노센터 온 에이징 (Latino Center on Aging-LCA) 올해의 공로상 수상자 7명 중에 포함되었다.

골든에이지 공로상은 뉴욕시의 히스패닉계 커뮤니티에 크게 공헌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지난 1993년 처음 시작됐으며 그 동안 공공정책 전문가와

커뮤니티 활동가, 기업 후원가 등에게 이상 수여됐다.

송 동문은 “교육자로서 히스패닉계 커뮤니티 단체가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인 커뮤니티와 히스패닉계 커뮤니티가 함께 추구하고 공유하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더욱 힘쓰고 또한 양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LAC는 오는 6월 28일 브루스에 있는 빌라배론 매너에서 제29회 골든에이지 공로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에게 공로상을 전달한다. 지난 1991년 설립된 LAC는 히스패닉계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권익 옹호 활동을 펼쳐 온 단체로, 이민자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하고 있다. [기사출처: 뉴욕 중앙일보]



리는 갈라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브리지는 갈라진 틈을 지상의 연장마루를 만들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고유의 생각은 다리위 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양식으로는 다리 위도 사람의 존재공간입니다. 다리(브리지) 밑은 허공입니다. 다리 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 허공을 잊어버리고 탄탄한 대지 위에 사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와일더 소설 속의 다리처럼 어느 순간 다시 허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기자, 미국유학, 아이비엠 직원, 다시 유학, 미국법과 대학원 그리고 경영대학원, 그리고 변호사--- 결국은 다리위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제야 그동안 아래도 위도 허공인 구름다리에서 햇살을 참 많이 걸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니면 신의 뜻이었을까? 그래서 그는 6년 동안 이 다섯사람의 삶을 추적합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들이 다리를 건너기까지의 인생 궤적을 적은 글을 남깁니다. 우연? 신의 뜻에 따른 필연? 양자택일의 문제일까요? 저 는 그사건이 길고 깊은 인연의 한 매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즐겨 <그는 나의 아버지였다, 이다> 출간을 축하하게 된 것도 긴 인연의 소산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저의 67년 인생을 되돌아 봅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에 제목을 부친다면 그것은 “다리 위에 살다” 입니다.

“다리 위의 인생” ---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몸은 조선사람이지만 서양식 사고에 젖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리”를 영어의 ‘bridge’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어의 브리지는 “floor”와 같은 개념의 말입니다. 한국어의 “다리”는 “가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가리”는 “가르다”와 같은 어원입니다. 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reet, Fitchburg, MA 01420

와일더는 <우리 동네 (Our Town)>이라는 유명한 희곡도 썼습니다. 삼박짜리 연극, 주인공 에밀리아가 사랑을 하고(일막), 결혼을 하고(이막), 그리고 24살에 돌풍이 불다가 죽는 이야기(삼막)입니다. 그녀의 장례식에서 에밀리아가 연극연출가(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순간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까요?” 대답은 “없다” 입니다. 그리고 좀 뜬금 없이 덧붙이는 연출가의 말. “성인이 나 시인 중에 몇몇은 그렇지! 저도 시인급 내를 내면서 능력껏 글을 쓰겠습니다. 지금 이순간을 놓치지 않고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아등바등하다가 이제 달빛 가득한 빈배를 타고 돌아가면서 글 하나 더 남기고 싶습니다. 인도의 불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5세기 국제인구라마지바의 자전적 소설.

[기사제공: 홍선례 편집위원]

동문 문단



조옥동 (사대 58)

오월은 오고, 가네

정보리 발이랑 사이로 가난이 풀리며
파란 깃발을 달고 오월이 오면
멀리 언덕으로 기차를 타고 떠나고 싶은 마음
골짜기 시냇물도 도란도란 어서 따라 가자고
안개 긴 산골을 깨우면 철쭉꽃 입술마다 열리는 환호성
사랑한단 말 아니해도 뒷밭의 목회 열매 달게 여물고
수줍은 사랑 달밤에 감꽃으로 피울 때
지난 봄
꺾인 꽃의 한 맺힌 소원을 우리는 듣는다

고향집 까치집 동지 속에 놓고 온 그리움의 이름을
죽어서도 피고 싶은 꽃씨 하나씩 품지 않은 이 있는가
천리만리 날아 와 높고 낮은 길 위에 부서질 듯 떨어진
믿음이란 씨앗 하늘의 별빛으로 포장하여 지닌 곳은
눈물조차 마른 변두리 모래땅, 데스벨리 소금밭 돌러가는 바람
흔적 없이 드나드는 모퉁이 어디쯤 이었나

어김없이 찾아 온 파란 손의 오월이
숨죽인 잡초들 깨워 꽃을 피우는 먼지 낀 길가에서
키 작은 해바라기 가녀린 목으로 해시계를 돌릴 때
풀 베개 위에 발강게 익힌 황혼의 여심旅心 눈을 감으면
고향은 환하게 다가와 옛길을 펼치는데
낮설게 변한 모습 가로막고 보여주지 않으려
작은 마을 오월은 푸르고 푸른 장막
여름을 두른다

※데스벨리, 캘리포니아 중부에 있는 주검의 사막이라 불리는 곳으로 모래둔덕과 소금밭으로 잘 알려진 해수면 보다 낮은 땅

약력: 본명 김옥동, oakjo@gmail.com UCLA Research staff 재미시인협회 회장 역임.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시사사)> <현대시조> <한국수필> 동단 <미주중앙일보> 평론입상
•시집: <여름에 온 가을엽서>, <내 삶의 절정을 만지고 싶다>, 수필집: <부부>(부부공저)
•수상: 제1회 재외동포문학상, <현대시조> 작품상, 경희 및 한국평론가협회 해외문학상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품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시시오. <편집부>

부자가 되는 법



조만연 (상대 58)

매년 1월이 되면 인컴택스(소득세) 보고철로 접어들다. 이때부터 납세자는 미루뎀된 세금 자료와 영수증을 챙기지만 회계사 사무실은 1년 만에 찾아온 대목을 놓칠 새라 마치 총선에 대비하는 한국의 정당처럼 모든 조직을 비상체제로 바꿔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 보다는 고객과의 면담이 나 세금에 대한 설명 등 부차적인 업무가 시간을 많이 차지한다. 그런 까닭으로 세금작성자는 자연스럽게 그 고객의 성공, 가족상황, 종교, 인생관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까지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 사람들이 세금보고 시 가장 관심을 표시하는 일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가릴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단연 으뜸을 차지한다.

세금보고 시즌에는 매스컴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절세방안을 접하게 되지만 진작 그 내용을 보면 극히 기초적인 것이어서 납세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그러나

개업자는 요즘 세상에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한다. 모두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다. 수익률과 위험도는 늘 공존하며 늘뎀듯 그 사이를 넘나들며 정확히 예측하기란 딱 어렵다. 필자도 고객들의 질문에 무엇을 좀 아는 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경제관련 서적이나 뉴스에서 습득한 수준이지 별 뵈족한 것이 못된다. 내가 말처럼 족집게라면 벌써 백만장자 축에 들었을 것이다. 경제전망을 다루는 해설가나 저명한 경제학 박사들이 축재했다는 소문을 듣지 못하는 것만 보아도 짐작 가는 일이다. 돈에 무서운 자린고비나 수천조 역시 큰 부자들은 별로 많지 않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재산은 지식이 많다는가 욕심을 부린다는가 해서 모아지는 것이 아닌 성 싶다. 나는 오랜 동안 고객들을 만나면서 부자인 사람, 부자가 아니어도 웬만하 사는 사람들을 살피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중 몇 가지를 꼽으면 성격이 무난하고 가정적이

“..성격이 무난하고 가정적이다. 사회 법규와 약속을 잘 지킨다. 말은 일에 열심이다. 돈에 인색치 않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

재산이라도 가진 사람들의 뉘이지 일반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세금을 줄일 방도가 없는 사람 중에는 영동하게도 작성대행인에 불과한 회계사에게 세금을 낮춰 달라고 사정, 더 나아가 생떼를 쓰기도 한다. 나는 그럴 경우 “절세는 힘들겠고 원하시면 탈세는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은퇴 뒤를 생각해서 능력껏 내는 것이 몇 배 더 좋습니다”라고 조언해 준다. 특히 탈세하려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꼭 해주는 말이 있다. 하나는 이민 온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이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면박을 준다. 미국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세금을 속이고 현금을 많이 내려는 교인으로 “세금도 현금입니다”라고 말해준다. 하나님은 흠이 있고 부정한 예물은 버쳐도 외면하시고 세금을 복지 등 없는 자를 위한 국가예산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저런 궁리를 해봐도 세금으로는 돈을 벌 길이 별로 없다. 큰돈을 만들려면 소득도 많아야 하지만 보유한 재산을 효과적으로 증식시켜야 한다. 그러나 재산을 불리는 방법도 상대하는 사람마다 달리 말한다. 은행가에게 물으면 안정성 있는 예금을 권유하고 증권업자는 장기적으로 주식투자가 유리하다고 쫓겨세우며 부동산 중

다. 사회 법규와 약속을 잘 지킨다. 말은 일에 열심이다. 돈에 인색치 않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 등등이다. 이런 나의 경험론적 통계는 토마스 스텐리가 미국의 백만장자 1천 3백 명을 조사해서 쓴 ‘백만장자의 정신’의 내용과 매우 흡사해서 한국이나 미국사람 모두가 부자가 되는 요령은 꼭 같다는 것을 세심 일깨워 주고 있다. 그 책에서 백만장자들은 자신의 머리가 명석하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장기간 부를 키워왔으며 성공한 이유는 원만한 인간관계, 노력과 근면성, 정직과 절제된 생활 그리고 배우자의 내조 등을 들었다. 여기에서 보듯 돈은 바른 길을 쫓아 자기 일에 충실하다 보면 저절로 쌓이는 것이지 억지로 조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신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오히려 냉철하게 대(對)하십시오. 더 큰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누구도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경력>

mahnjo@hotmail.com,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장, 이사장 역임,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역임, 미주한국일보 칼럼 '오피니언' 고정 필진, 제1회 재외동포문학상 수필부문 입상, 제8회 한국수필학회의 문학상 수상, 수필집 <새동>, <부부>(공저)



<강신용 CPA의 경제 이야기>

아마존 공룡의 미래 상상도

강신용 (사대 73)

밀립속의 아마존강은 온라인 상에서 세계 최고의 아마존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A to Z가 Amazon.com위에 모두 존재한다. 젊은 제프 베조스의 꿈은 회사의 작명 속에도 숨어있다.

아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아마존 매장은 크기가 축구장 28개쯤인 120만 스퀘어 피트이며, 사이버 먼데이에는 풀, 파타임 직원 5만여 명이 220만 종의 물건을 판다고 한다. 사이버먼데이 4일동안 년매출의 20%를 올리고 있다.

A: 상상을 초월하는 아마존 공룡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5년이내 미래 상상도:

- 영향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발전:에 월류드마트 인수.
- 물류센터(풀필먼트센터)에는 15,000로봇으로 물품정리와 배송 준비
- 소비자의 주문과 결제 그리고 로봇이 물건을 가져오는 시간은 15분
- 무인자동차와 드론(무인기)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이 현실화

2. 2030년의 4차 산업혁명시대 상상도

- 로봇이 인간 일자리 70%를 대체
- 10년후에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일반화
- 10년 안에 화석연료 사용이 현격히 줄어든다
- 20년 뒤에는 무인주행차만 도로 출현
- 태양광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반가격으로 가능
- 집과 자동차에 설치한 태양광을 전기대신 이용

B: 아마존의 현재의 모습은?

1. 매력적인 아마존 시스템

- 1-Click으로 주문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 문지마 반품과 환불, 시간들여 싸울 필요가 없다
- 2%이하 이윤의 바리다매와 비용 절감
- 아마존 구매 증독에 빠져게 만듦다
- 잔고금액을 사용하도록 구매리스트 서비스

2. 기업가의 혁신 정신

- 성장은 싼 가격구조와 싼 가격에서 나오고 이는 좋은 고객 창출
- 좋은 고객은 곧 홈페이지 사용자 증가
- 상품과 서비스 판매자들이 많이 끌어들이고 고객의 질 상승

• 베조스의 아마존의 경영전략에는 어디에도 이윤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3. 리테일에서 본 손실은 어떻게 보존하는가?

- 년 99달러의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의 8000만 멤버십 서비스 요금
- 클라우드 시장을 개척 --다른 사업자에게 서버자원을 대어
- AWS로 저렴하게 서버 임대해 통해 사용자들이 비용 경감
- 삼성, LG, 신한은행, 미래에셋 등 많은 한국 기업도 아마존 임대사용
- 인공지능 비서, 아마존 알렉사를 실은 스마트 스피커 아마존 에코 출시
- 음악 재생, 알람, 아마존닷컴에 주문할 수 있다
- 일정을 추가하고 추가한 일정을 리마인드와 날씨 정보 제공
- 알렉사는 음성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 가능하게 판매
- 알렉사 스킵스 키트와 스타벅스, 도미노 피자, 우버등알렉사 이용

4. 경쟁사들과 현실적인 충돌

- 아마존닷컴은 책장사로 시작해 반즈앤노블 서점에 완승하고 있다
- 넷플릭스 만큼 가입자 수를 음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에서 확보
- 태블릿 PC 콘텐츠, 전자책 시장에서 월 999달러에 70만권 무제한 구독
- 아마존 프라임 뮤직&뮤직 언리미티드 사용자는 1000만 곡 무제한 감상

C: 아마존의 재무 상태와 투자 대상으로 감정은?

1. 주식

- 현재 주당 \$1,000가 넘지만 한때는 \$81만일 때도 있었다
- 시가총액은 5,000억 달러로 세계 경제 13위 대한민국 1년예산보다 많다
- 경쟁사들은 공룡급의 투자와 최소한의 영업이익으로 무경쟁 상태
- 워렌 버핏마저도 아마존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 제프 베조스는 미래에 대한 혁신적 선구안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한다

2. 아마존은 얼마나 수익을 올리는가?

-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2020년에 약 4000억 달러이고 40%를 점유한다.
- 8000만명 이상에게 년 회비로 약 \$100씩 매년 거두어들인다
- 수많은 거래처에 단기성 용자를 해주는 금융거래에서 이자 수입발생
- 온라인 거래상 필요한 스타업기업을 인

서울 메디칼 그룹 (대표 Dr. 차민영, 의대 76) 연계 탐병원 오픈 하우스 행사



서울 메디칼 그룹 (대표: Dr. 차민영 서울 의대 76)에서 탐병원 원장 김민성 박사를 영입하여 그룹 연계 탐병원 오픈 하우스 행사를 5월 8일 탐병원에서 열었다. 김민성 박사는 "저로 하여금 제 주위의 1.5세 또는 2세의 미국계 한국인 의사들에게 좋은 예로 보여져, 다른 한국계 미국인 의사들 또한 한국 커뮤니티에 더 좋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싶다" 라고 말했다.

차민영 박사는 4만 명에 달하는 독립된 의사들이 함께 하는 그룹에 젊은 의료진들을 영입하여 큰 봉사 정신을 토대로 하와이, 조

지아, 시애틀, 버지니아 등지에 시니어 메디컬 그룹을 확장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긴 대기 시간을 줄이며, 편리함을 주는 것이 목표이다. 1993년에 설립된 서울 메디칼 그룹은 남가주의 주요 한국계 미국인 의사들이 소속된 단체다. 다수의 한국 이민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산타클라라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종합적이고 완전한 건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제공: 백옥자 조직국장]

제갈소망(음대 02) 동문 Santa Monica Symphony 정기연주회 초청 협연



지난 3월 24일 Santa Monica에 위치한 Barnum Hall에서 피아니스트 제갈소망 (음대 02, 문화위원) 동문이 Santa Monica Symphony 정기연주회에 초청되어 협연을 하였다.

이 음악회에서 지휘를 맡은 Guido는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한데, Guido Lamella과 제갈소망 동문은 2017년에 Brahms Piano Quintet 을 함께 연주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의 제안으로 이번 연주를 기획하게 되어 Santa Monica Symphony 정기연주회에 초청 받은 것이다. Guido Lamella 의 지휘로 Symphony

Orchestra 의 73rd Season Spring Concert 에서 J. Brahms Piano Concerto No. 1 in D Minor 를 협연하였다.

총 1,250석 규모의 Bamum Hall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연주가 끝난 뒤에 모두 일어나 앵콜 박수를 보내는 등,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제갈소망의 탁월한 연주에 장내는 온통 흥분과 감동의 도가니였다. 제갈소망 동문은 내년 2월에는 Guido Lamella과 Disney 홀에서 Brahms Piano Trio 를 연주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홍선례 편집위원]

수합병하여 미래의 수입원 창출

결론적으로, 아마존닷컴은 현대판, 개천에서 용이 승천한 경우이다. 세상이 바뀌어 온라인상에서 하늘로 오르는 용을 본 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중국의 알리바바

마윈, 페이스북의 저크버그같은 인물들이 다. 아마존닷컴이 무서운 공룡인 것은 인간의 생활속에 독점적 구매자로 모든 거래에서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아마존의 맛에 중독되고 있다. 그러나 독점적 기업으로 아마존닷컴은 수많은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미주 동창회 제27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정

Crowne Plaza Boston-Natick, 1360 Worcester St., Natick, MA 01760, USA

Time \ Date	6월 15일 (금요일)	6월 16일 (토요일)	6월 17일 (일요일)	
오전	7:00 - 8:30	조찬		
	8:30 - 9:00	등록 접수		
	9:00 - 10:00	평의원 회의	오전 회의	
	10:00 - 11:30		점심 식사	
11:30 - 12:00	등록 접수	오후 회의 속개		
오후	12:00 - 1:30	특별 강연 (NE 동창회)		
	1:30 - 2:00	휴식		
	2:00 - 3:00	"한반도의 통일은 가능한가?" 국제정치학 이재진 교수	환영사, 포상자 시상, 미주 동창회 장학금 수여	만찬
	3:00 - 3:30			
	3:30 - 4:00	휴식	환영사, 포상자 시상, 미주 동창회 장학금 수여	식사
	4:00 - 5:00			
	5:00 - 6:00	휴식	음악회 및 친목	
	6:00 - 6:30			환영사, 포상자 시상, NE 동창회 장학금 수여
	6:30 - 7:00	찬석자 소개 및 친목		
	7:00 - 7:30		찬석자 소개 및 친목	
7:30 - 8:00	찬석자 소개 및 친목			
8:00 - 8:30		찬석자 소개 및 친목		
8:30 - 9:00	찬석자 소개 및 친목			
9:00 - 9:30		찬석자 소개 및 친목		
9:30 - 10:00	찬석자 소개 및 친목			
10:00 - 10:30		지부장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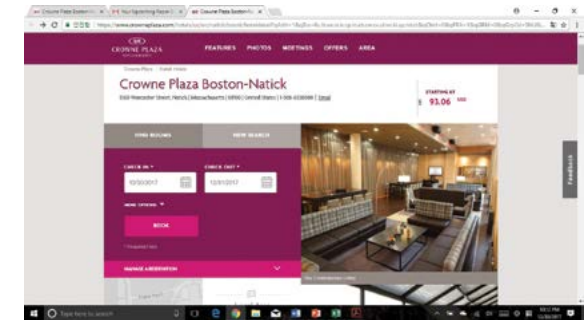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제27차 평의원 회의

일시: 2018년 6월 15일 (금) ~ 17일 (일)
장소: Crowne Plaza Boston-Natick
1360 Worcester St., Natick, MA 01760, USA
Tel: 1-508-653-8800

호텔 예약 안내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2018년 5월 15일까지 예약을 하셔서 호텔에 제공하는 특별 할인 가격을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Room rate: King or Double Occupancy \$135.00 plus tax/night) 더블 룸의 수량이 적기 때문에 더블룸을 원하시면 가급적 빨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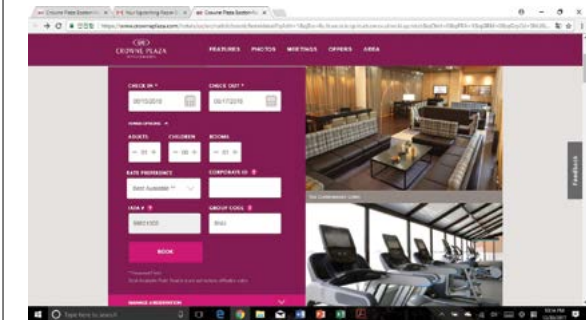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Reservations Department (800-265-0339)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래 예약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예약사이트 (https://www.crowneplaza.com/redirect?path=hd&brandCode=CP&localeCode=en®ionCode=1&hotelCode=BOSNK&PMID=99801505&GPC=SNU&viewfull-site=true)



(날짜 입력 전 화면 캡처)

예약 사이트에서 평의원 회의를 위해 머무르실 날짜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group code: SNU로 입력된 예약사이트

로 이동하며 나머지 게스트 정보 등을 입력하고 예약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날짜 입력 후 화면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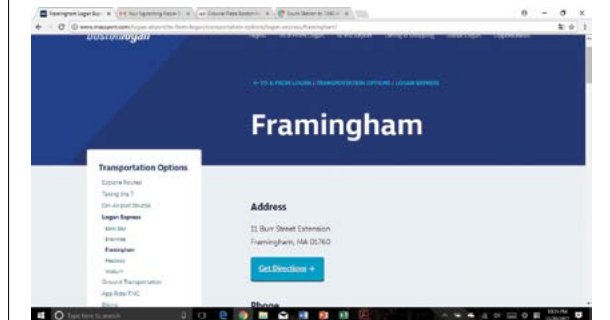
특별 할인 가격 (\$135.00 plus tax/night)은 평의원 회의 기간 (6월 14일 - 18일) 동안만 적용됩니다.

공항 교통편 안내

Boston Logan Airport에 도착 후 공항 버스나 택시 또는 우버를 이용하여 호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공항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Framingham 방향으로 가는 Logan Express bus service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섯 방향의 다른 운행루트가 있으니 반드시 Framingham으로 가는 버스를 타셔야 합니다. 버스는 주중에 매 30분마다 운행을 하고 있으며 운임은 성인 왕복 \$22 (65세 이상 \$20)입니다. Framingham bus terminal에서 호텔까지는 차로 5분 정도 거리이며 호텔에서 Shuttle를 운행합니다. 도착해서 Crowne Plaza Boston-Natick로 전화 (1-508-653-8800)를 하시기 바랍니다. Logan Express bus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캡처 이미지 참조) (http://www.massport.com/logan-airport/to-from-logan/transportation-options/logan-express/framingham/)
2.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의 주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거리는 23 마일로 약 30분 가량 소요됩니다.

Crowne Plaza Boston-Natick
1360 Worcester St., Natick, MA 01760



(Logan Express bus 관련 화면 캡처)

3. 응급 상황이거나 문의가 있으신 경우 임원진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래 1-978-835-0100, 이상운 1-508-251-9691, 장수인 1-978-264-2988

기차 교통편 안내

Amtrak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Boston South Station에 도착 후 택시를 이용하여 호텔로 이동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택시를 이용하실 경우 기차역에서 호텔까지 거리는 20 마일로 약 30분 가량 소요됩니다. 호텔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Crowne Plaza Boston-Natick
1360 Worcester St., Natick, MA 01760

평의원 회의 관련 문의는
다음의 임원진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래 1-978-835-0100, 이상운 1-508-251-9691
장수인 1-978-264-2988

남가주 총동창회 전 23대 회장 방석훈(농대 59) 동문 인터뷰

술선 수범의 봉사로 남가주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

1. 미국에 오신 동기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우렁찬 음성으로 힘이 넘치시는 회장님... 우렁찬 음성으로 힘이 넘치시는 회장님...

몸과, 깨끗한 자세는 예전 그대로 여서... 몸과, 깨끗한 자세는 예전 그대로 여서... 몸과, 깨끗한 자세는 예전 그대로 여서...

글: 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백옥자

2. 이민 오시고 가장 보람된 일과 나뉘던 추억

미국에 빈손으로 와서 공부를 하여 석사 학위를 받은 것과, 평생의 반려자를 소개받아 결혼하고, 음악을 좋아했는데 다행히 성악을 전공한 아내를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에 보람을 느낀다.

서울대 총동창회장을 지내신 임광수 회장님을 비롯해 윤근환, 공대식, 우인성 부회장님 등과의 아름다운 인연, 이 곳 서울대 미주 총동창회를 통해 제7대 오홍호 회장님과 같이 일한 동문들의 모임인 "초우회", 제11대 회장단 모임인 "Club 11th", 모두가 소중한 인연이다.

한 동문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노후를 여행하며, 지난 일들을 얘기하며 지내는 시간은 나에게 큰 즐거움과 보람으로 남으며, 서울대 출신임이 자랑스럽다.

5. 서울대 동문들께 귀감의 말씀



윤상래 미주동창회장, 백옥자 조직국장, 김재영 동문, 방석훈 동문

중한 인연이다.

지금까지 초우회는 12년도 넘도록 매달 만나 여행도 같이 가고, 아내들이 주도하여, 만나는 기쁨에 아내의 잡도 안자고 정갈스런 밑반찬을 만들어 가져 서로 나누고 가족처럼 지낸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서울대를 나왔다"는 자부심을 잃지 마시고, 우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 가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슬픈 일은 연변에서 공산당의 핍박이 싫어 남한 이주 후, 1964년 어머니 별세 때 유학 시절 학업으로 가보지 못했던 일이 지금 가장 가슴 아픈 일로 남는다.

3. 서울대 동창회에 남다른 애정과 선후배의 돈독한 우정을 이끌어 오신 대인관계의 가장 큰 비결은?

너무나 과찬이십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좋아하며, 꾸밈없고 솔직한 것이 아닐까요?

(필자 주: 방석훈 회장은 포용력과 감싸 안는 배려로 옆에서 볼 때 매우 아름답다. 그러나 잘못 되었을 때는 큰소리로 거침없이 지적 하시는 깨끗한 성품이시다)

4. 서울대 출신으로 자랑스러운 점은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이원영 (사회 81)

[진맥 세상]

세컨드 오피니언

즐거 '진맥 세상' 출간을 계기로 건강 강연회를 겸한 출판 사회회를 가졌다. 강연을 시작하면서 책을 몇 권 보여주었다.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로버트 멘델존)' '약이 병이 된다(우타가와 쿠미코)' '환자 혁명(조한경)' '불량제약회사(벤 골드에이커)'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마쓰모토 미쓰마사)' '유사암으로 요절하는 사람 진짜암이어도 장수하는 사람(곤도 마코토)'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스티븐 시몬스)' '알츠하이머의 종말(데일 브레드슨)' 등.

150여 청중들은 눈과 귀를 집중했다. "지금 소개한 책 중에서 한 권이라도 읽은 분이면 손 들어 보세요" 두세 명이 손을 들었을 뿐이다. 이어진 서두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다.

"지금 제가 소개한 책들은 모두 의사들이 쓴 책입니다. 제목이 불운하죠. 실제로 이 책들은 의료계에 종사하면서 기존 의료 시스템과 치료방식에 문제점을 느끼고 새로운 의료 대안을 제시한 책들입니다. 일종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에서는 '세컨드 오피니언(second opinion: 2차 소견)'이 매우 중요... 의사들에게는 환자를 다루는 확대된 시야를 갖게 해주기에 필요하고, 환자들에게는 약과 의사에 대한 맹신을 벗고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지혜를 갖게..."

양심고백을 담은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읽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일반인들은 의료 분야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데다 의사와 약이 알아서 내 몸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으니 굳이 읽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대체로 바쁘고 배운대로 치료해도 돈벌이에 지장 없으니 다른 의견에 시큰둥합니다. 심지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사들을 '돌팔이' 취급해 왕따시키는 일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의료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일반인들에게 전해질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 의료계 인사들로부터 눈총도 받지만 글과 강연을 통해 이런 책들을 통해 깨달은 내용들을 부지런히 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메디컬 분야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들이 많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에서는 '세컨드 오피니언(second opinion: 2차 소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의사들에게는 환자를 다루는 확대된 시야를 갖게 해주

기에 필요하고, 환자들에게는 약과 의사에 대한 맹신을 벗고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지혜를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메디컬 공부를 제법 한다고 하는 나도 한동안 지방(fat)을 극도로 기피했다. 저지방 식품이 곧 건강식품이고, 지방은 무조건 건강에 안 좋다는 고정관념에 갇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연히 '지방의 누명'이란 다큐를 보

면서 생각이 흔들렸다. 좋은 지방을 맘껏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줄여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건강을 극적으로 회복한 사례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저탄고지'(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이는 식이요법)에 관심을 가졌고, 관련 서적들을 읽으며 나름대로 확신을 갖게 됐다. 지금은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고, 대신 올리브유, 코코넛오일 등을 간식처럼 '맛있게' 먹게 됐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식생활 패턴의 변화다. 세컨드 오피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을 개선하지 못했을 것이다. 알고 터득하면 바꾸게 된다.

고정관념에 갇혀 세컨드 오피니언을 무시한다면 의사나 환자나 지혜의 확장은 불가능하다.

최상의 의사는 꾸준히 공부를 하며 세컨드 오피니언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는 의사다. 그런 의사는 환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교과서 지식만으로 '내가 최고'라는 태도를 보이는 의사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환자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건강 칼럼을 쓰고 강연하는 이유는 하나다. 의료를 공부한 언론인의 입장에서 남들이 갈 만한 '세컨드 오피니언'을 널리 알려 좋은 의사, 현명한 환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미주중앙일보 논설실장

우리는 이민자다



이중호 (인문 81)

#. 성경 창세기 등장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이민자였다는 사실은 무척 흥미롭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이민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이야기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도 이민자로 살아가는 미주 한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새로운 땅에 터를 잡은 후 우물부터 파거나 구입했던 아브라함 일가의 정착 방식은 미국 땅에서 한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 한인들의 생업 터전이자 장차 후손들을 위해 씨를 뿌려야 할 곳이 더 이상 한국이 아니라 이곳 미국이라는 자각과도 직결되어 있다.

면서 스스로는 그렇게 무심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부모 세대의 이런 사고방식 탓인지는 몰라

"이제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이념에 따라 우리끼리 나뉘고 반목하는 일은 그만 좀 하자는 것이다. 이미 이민자라는 한 배를 탄 이상 우리만의 항로를 찾고 우리만의 과제 해결에 에너지를 모으기에도 시간이 한참 모자라기 때문"

#. 19세기 서구 문화의 충격 앞에 한중일 동양 3국의 지식인들이 느꼈던 당혹감도 이와 비슷했다. 물려오는 서양 문물에 대한 대응 방식과 폭은 나라마다 크게 달랐고 그에 따라 각국의 운명도 달랐다. 그렇지만 선진 기술 문명과 문물을 받아들여야 할 민중 고유의 정체성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똑같았다. 이를 중국에선 중체서용(中體西用)이라 했고 일본에선 화혼양재(和魂洋才)라 불렀다. 조선에서는 동도서기(東道西器)라 했다.

안타깝게도 조선의 동도서기 운동은 시작도 늦었고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만큼 널리

는 위정척사론(衛正斥邪論)이 대세였다. 성리학적 세계관만 최고인 줄 알았던 대다수 지배층과 백성들에게 서양 문물은 무조건 '나쁘고 악한'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동도서기론 같은 비교적 온건한 주장조차도 설 자리가 없었다. 조선이 근대화의 때를 놓치고 국운 회복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정체성이란 뿌리에 대한 자각이고 지금 처한 상황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뿌리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튼실한 열매는커녕 썩도 튀우지 못할 수가 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떠나온 땅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무리 한국이 편하고 좋아도 언제까지 한국 이야기에만 온 신경을 모아서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무조건 한국을 멀리하자는 게 아니다. 이제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이념에 따라 우리끼리 나뉘고 반목하는 일은 그만 좀 하자는 것이다. 이미 이민자라는 한 배를 탄 이상 우리만의 항로를 찾고 우리만의 과제 해결에 에너지를 모으기에도 시간이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럴 때 동도서기 같은 옛 선조들의 중심잡기 노력은 지금 한인 이민자들에게 좋은 방향등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조어법(造語法)의 '한근미실(韓根美實)'같은 사자성어라도 한 번 곰씹어 보면 어떻게 싶다. 물론 뜻은 '뿌리는 한국에, 그 열매는 미국에서다.'

확산되지도 못했다. 게다가 전통적 지배질서와 사회체제를 그대로 두면서 부국강병을 모색하려 했다는 점에서 보수적 개량주의라는 한계까지 있었다.

당시엔 바른 것(성리학)을 지키고 사악한 것(서양과 일본의 개화 문명)은 배척해야 한다

그렇지만 대개의 이민 1세대들은 여전히 미국보다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정치 사회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꿰고 있으면서 미국과 관련된 것들은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한 태도가 그런 것이다. 물론 낯선 언어,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익숙한 것에 대한 선호가 오히려 더 강하게 발현된 탓도 있겠다. 그렇지만 자신들에게 미국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

도 15세 2세대 대부분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고 미국 친구를 사귀면서 스스로 미국인이라 생각하기도 외모와 사고방식, 문화 등의 차이로 결국은 자신이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존재론적 딜레마에 힘들어하는 것이다.

<LA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 이영송 (치대 63) 이사장 인터뷰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한인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온 열정

-<LA 한인타운 시니어 및 커뮤니티 센터 (이하 시니어 센터)> 소개와 설립 목적은?

시니어 센터는 LA 한인타운 내에 있지만 한인 뿐 아니라 모든 인종의 노인들을 위한 다목적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고 시니어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다민족 노인들의 우호증진 및 상호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무료 의료 건강검진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노인 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발간 및 홍보사업 등을 하고 있다.

- 시니어 센터가 한인 이민 역사상 미국 전체에 처음으로 시(LA) 당국의 지원을 받아서 지은 자체 건물이라고 들었다.

맞다. 지난 2000년 5월 건축 발표 이후 장장 11년에 걸쳐 완공된 시니어 센터는 LA 시에서 대지를 30년동안 연 1달러씩 총 30달러에 대여했고, 건축관련 기금을 CRA/LA (LA시 도시 재개발국)을 통해 190만불을 지원받았으며, 타운 내 주요단체와 인사들이 기금을 더하여 2011년 4월에 12,000sq.의 시니어센터 건물이 세워졌다. 100년이 넘는 한인 이민 역사에서 한인타운 안에 이렇게 우뚝선 커뮤니티 센터를 가질 수 없게된 것은 미국 전체에서 LA가 처음이다.

- 매년 임대비가 1달러로 30년간 겨우 30달러라... 그렇다면 지원받은 190만 달러는 무슨 비용으로 어떻게 상환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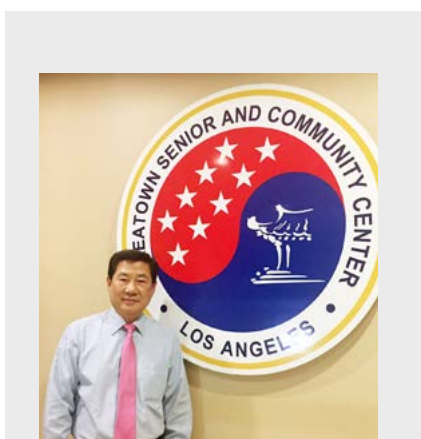
190만불을 매년 19만불씩 10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데, 돈으로 상환하게 아니라 의사, 변호사, 교수, 기능인 등 전문인들의 봉사 및 재능기부 비용을 매년 기록하여 돈으로 환산하여 상환하는 In-kind donation 방식으로 같고 있다. 감사하게도 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매년 20만불 넘는 비용을 상환하고 있다.

- 시니어 센터 봉사 프로그램과 참가인원은?

1주일에 약 1,700명 (한달에 7000명 이상)이 다양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운동 (라인댄스, 춤바, 요가, 한국무용) 음악 교실 (장구기초, 전통경기민요) 언어교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시민권 영어) 예술교실 (목각/서각, 서예교실, 한지공예, 편물교실), 실용 (헤어커트, 사진교실, 컴퓨터, 스마트폰 교실, 차문화 교실), 및 각종 상담 (한방, 법률, 의료, 건강교실) 등 매주 30여개가 넘는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다.

- 치과 의사로서 일하면서도 지난 40년 동안 LA 한인사회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고 들었다. 한인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하게된 계기가 이유는?

대학 졸업 후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친 후 병원 후배였던 아내와 함께 1975년 LA로 왔다. 이듬해 USC 치대에 입학해 보철전문의가 되었고, 1979년 가을 이



올 초에 Los Angeles 사는 친구 방문 중 한인 비영리기관 몇 곳을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다. 필자 역시 워싱턴 한인사회

의 한 비영리 기관에서 오랫동안 소장 겸 심리상담사로 일해왔기에 한인 이민자가 가장 많이 사는 LA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어떤 모습인지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다. 그러던 중 남가주 한인사회의 대표되는 시니어 봉사기관인 <LA 한인타운 시니어 및 커뮤니티 센터 (이하 시니어 센터)>를 방문했다. 서울대 선배이기도 한 이영송 이사장 (치대 63)의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한인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온 열정과 <인생 후반전, 행복 찾기 도전> 계획을 나누는 마음이 따뜻해진 시간이었다.

글, 사진: 한정민 (농대 87) 편집위원



음악교실에서 전통악기 장구를 배우고 있는 회원들



LA 한인타운 시니어 및 커뮤니티 센터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열심히 돕는게 의미있는 인생이란걸 깨닫고 작년에 시니어센터 이사장직 제안을 수락하고 그 일에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스트LA 유티어에 병원을 개업했고 1981년부터는 USC 치대 임상 조교수로도 6년간 근무했고 지금은 이영송 치과그룹(Beverly West Dental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인이거나 소위 가방꾼이긴 사람들은 한인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 탐탁치 않게 여기

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나의 생각은 좀 다르다. 미주류 사회에 참여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 한인 이민자와 내가 몸담고 있는 한인사회를 돕고 나누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믿었기에, LA한인사회의 여러 기관

에서 열심히 활동했다. 돌아보니 1984년 LA 라이온스 클럽 회장, 1986년 범민중화미주지역 대행진 대회장, 1988-89년 LA 한인상공회회소 회장, 1986-1991년 재미한인친과협회 부회장도 회장, 2000년 한국중소기업 LA 추진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통 자문회의 LA회장(8대), 1997-99년 한국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등 참 다양한 기관에서 열심히 보람있게 일했다. 1989년에는 남가주 상공인 북한방문단 단장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 LA 다저스의 박찬호 선수의 입단을 가능하게 했다고 들었다.

1992년 429 LA 폭동으로 한인사회가 크게 침체됐던 시기였다. 그때 LA 다저스 구단주와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박찬호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길래 영입을 제안했다. 힘든 한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는 일이라 확신했었다. 그러나 군대 문제가 걸려서 입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후 반년간 한국을 세번씩 오가며 영입을 추진해 결국 그해 연말 박 선수의 입단을 성사시켰다. 최초의 한인 메이저리거의 탄생은 LA 지역 뿐 아니라 미 전역의 한인들을 관심과 긍지를 불러일으켰다.

- 앞으로의 인생 계획은?

늘 시니어들의 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2013년 시니어센터 개관 당시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아내의 입원과 나 역시 심장협착증 수술로 넉달만에 사임해야했다. 3년전에 8년동안 치매를 앓았던 소아과 전문의 아내를 떠나보내고 1년동안은 집과 치과만을 오가며 두문불출했다. 3남매를 두고 있지만 모두 자신들의 일과 가정에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살고 있기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혼자 지내고 있다. 당시에는 왜 애는지 왜 사는지 무의미하게 느껴질만큼 우울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별 후 못해준 것에 연연하기 보다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열심히 돕는게 의미있는 인생이란걸 깨닫고 작년에 시니어센터 이사장직 제안을 수락하고 그 일에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내년엔 은퇴해서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해보고 싶다. 20년전 입문했다가 중단한 사진 촬영부터 세계 여행까지 그동안 아내 병간호와 바쁘게 사느라 뒷전으로 밀려있던 진짜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할 계획이다.

공자가 중심소욕 불유구 (從心所欲 不踰矩 :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았으되 범도에 어긋나지 않더라) 일컫던 일흔을 훌쩍 넘겼으나, 숫자뿐만이 나이에 스스로를 묶어놓지 않고,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 행복찾기 도전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아름답다. 청춘이 뭐 별거던가? 하고 싶은 일로 인해 여전히 가슴 뛰며 내일을 기대하며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는 분명,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멋진 서울대인이다.



천양곡 (의대 63)

작은 인연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시작된 한파는 3주 이상 계속되었다. 그 중에서 2018년 1월 3일은 35년만에 찾아온 기록적 추위로 시카고를 공공 얼어붙게 만들었다. 새벽녘에는 화개 영하 7도까지 내려갔고 낮 최고기온은 고작 영상 2-3도를 넘나들었다. 거기에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살인적 추위에 TV와 방송에서는 바깥 출입을 삼가하라는 뉴스를 수시로 알렸다.

비발디의 세계 중 겨울파트 음률이 내 스마트폰의 유튜브에서 흘러나온다. 바로크 시대 이태리의 바이올린 연주자요 작곡가인 안토니오 비발디는 계절의 변화를 현악기 오케스트라를 통해 음악으로 표현했다. 음악은 심술사나운 계묘처럼 두렵고 무섭고 쌀쌀한 추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을 묘사하듯 거칠게 나오다가 난데없이 따뜻한 화로가에서 몸을 녹이는 아늑한 분위기의 음률로 바뀌더니 다시 얼음 위를 걷다 미끄러지는 날카로운 리듬으로 변해간다.

사계절 음악을 들으며 밖을 내다 보았다. 서재 창문을 통해 뒷 뜰 골프장에 밝은 햇살이 내려 쪼이고 있어 포근하게 보였다. "기록적 추위를 기록한 날 집에 있지 말고 나가 보아라"고 내 전두엽이 충동질했다. 우리 모두는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가끔 영동한 일을 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은퇴한 나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 나가자, 설마 죽기야 하겠는가" 중얼거리며 두툼게 옷을 걸치고 집 근처 공원으로 차를 몰았다. 놀랄게도 겨울 절경원의 경치가 좋아서인지 그냥 나오고 싶었는지 혹은 먹물든 자식인양 무슨 깨달음을 찾고자 했는지 10여명의 젊은 남녀들이 공원오솔길을 걷거나 뛰고 있었다. 내 나이 또래는 없는 것 같았다. 그들과 어울려 걷고 있는데 머리 위에

서 새소리가 들렸다. 알팍하게 눈 덮힌 양산한 나무 가지에 조그만 새 한 마리가 눈을 쪼아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추운 날 왜 나왔을까, 배가 고파서? 아니면 나처럼 혹독한 추위와 강풍에 맞서보려고? 그런 물음을 접어두고 얼른 포켓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그 녀석 사진을 담았다. 집에 돌아와 책을 찾아보니 북 미주 추운지방에서 서식



하는 겨울새의 하나인 Snow bunting(백색 멧새)이었다. 배와 등 부분이 허어스름하고 크기가 5인치 조금 넘는 우는 작은 새의 일종이다.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인지 이곳 시카고까지 날아온 모양이다.

그날 시카고 트리뷴지에 미국에서 잘 알려진 어느 갈매기 전문가에 대한기사가 실렸다. 내가 사는 같은 동네사람으로 새벽 일찍 북쪽으로 50 마일 떨어진 어느 호수의 파킹장에서 아주 희귀한 새를 목격했다. 그 새는 북극권 지역인 그린랜드, 러시아, 캐나다 북쪽에 사는 북극 흰 갈매기(Wovry Gull)로 부리를 제외한 몸 전체가 상아같이 희고, 지구상에 약 2만 5000 마리 뿐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새다. 북극 흰 갈매기는 갈매

기 전문가들 사이에는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베풀 때 사용했던 성스러운 쟁반(Holly Grail)에 비할만큼 희귀하고 성스러운 새로 알려져 있다. 이제껏 일리노이 주에서 4번째로 본 기록이다. 북극 흰 갈매기에 비할바가 아니지만 혹독히 추운 날 백색 멧새를 처음 본 기쁨이 내 뇌세포를 자극했는데 15년 전 내 생의 한 단면이 생각나서 적어 본다.

한 때 일은 첫째, 새 보러다니는게 둘째인 시절도 있었다. 몇 년을 뒤에 다니다보니 새에 대해 많이 알게되어 동기생들에게 새벽사로 통했다. 심리학자 앤더슨 에릭슨은 무슨 일든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노력해야 한다. 그러지 못했으니 나는 진짜 새벽사는 아니었다. 내가 새 관찰자가 된 사연은 이렇다. 선친께서 사냥을 무척

좋아하는 일을 할건가, 하고 싶은 일을 할건가, 둘이 일체되는 경우가 드물기에 둘다 하기는 어렵다.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좋아하고 싶은 일을 잘 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 현대사회는 성공을 최상의 가치로 인식한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너무 집착할 수록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간다. 생의 후반전인 노년기에 들어 서자 가끔 사랑받으

니 같이 찾아오는 지나간 삶에 대한 후회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여기 이 순간의 삶을 즐기기 위해 혹독한 날씨에 공원을 나온 것은 자도 모른다. 정신분석 심리학자 에릭 앤더슨이 주장하듯 누구의 도움이나 충고에 아랑곳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자질을 만족시켜주는 통로로 추움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인간의 뇌는 100조 가량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 노인이 되면 뇌세포가 하루에 10만개 이상씩 죽어 간다. 나이 들수록 죽고 집 안에 있지 말고 가끔은 밖에 나가 보는 것도 좋다. 그러면 뇌세포를 자극하여 노화과정을 잠시 늦추 주는 하나의 방법도 된다. 나와 그 갈매기 전문가는 따뜻한 방의 카우치에서 커피를 훌쩍거리는 일상의 편안함과 아늑함 대신 기록을 세운 추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겨울철에 시카고 북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 잿빛 갈매기(Herring Gull)를 보러 갔는데 운이 좋아 희귀한 새를 카메라로 찍을 수 있었다고 겸손해 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그에게 맞는 말이다. 저.ms레한 나무의 가지에 보일 듯 말 듯 앉아 눈을 쪼아 먹고 있던 백색 멧새를 만난 내 경우는 무어라 설명할까? 그냥 금강 하류의 조그만 시골에서 태어나 미국까지 건너온 인생여정 중 몇몇은 작은 인연이라고 해주자. 아니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향하는 하나의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원인과 결과라는 프로이드 선생의 인과론이라 하든지.

서울대학교 국제하게강좌 (SNU ISI)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강의를 수강하고 서울대학교와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 동문자녀들에게는 20%수업료 면제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Includes a table of courses and a list of alumni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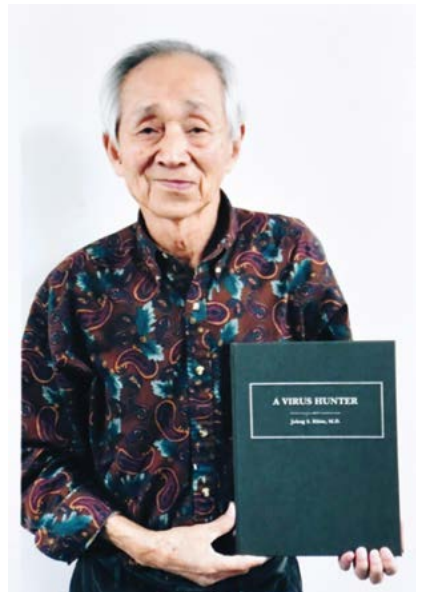
서윤석 (의대 62)

임종식(의대 51) 교수의

저서 'A Virus Hunter'를 읽고

며칠 전에 본인은 지난 달 임 선배님이 출간하신 Hard Cover Book인 9X9 인치의 200페이지 담긴 이 저서(Memoir)를 접하게 되었다. 작년 2월 사모님 Mary Lytle Rhim을 떠나 보내신 후, 어찌 지내시는지 궁금하던 중이었었는데 이렇게 만 88세의 나이에 이세상 다른 어디에서도 또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책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고 지극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는 세 살때 온돌방에서 미끄러져 생긴 대퇴골의 골절을 잘못 치료 받았는데 당시의 모든 명인들이 다리를 절단해야만 살지말지하라는 불치병이라고 결론을 내렸단다. 그렇게 6년간을 고생하였다가 어느날 고름이 줄줄 나오던 그 다리의 상처에 어떤 한방의사가 흰 종이를 돌돌 말아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상처에 넣고 무엇이 성분인지 알 수 없는 까만 가루약을 그 속에 집어 넣어서 완치를 받게 되었다. 그때가 1939년이니 항생제가 나오기 전 일이다. 그 약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알 수 없지만 어쨌던지 그



항방의사의 비방은 기적처럼 상처를 완전히 치유했던 것이다. 그 후 저자는 자신이 자라서도 그런 불치병에 시달리는 환자를 돌보는 좋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연로하신 아버지의 사업실패가세가 기울면서 당면한 모든 경제적, 신체적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의 세계적인 Medical Researcher로 되니까지의 그의 행보가 이 책 속에 들어 있다.

다섯 Part로 정리된 각 Chapter에는 어린시절과 학창시절이야기, 미국 이민 초창기 생활, 가족 소개와 사진과 글들, 기억나는 여행과 사건과 아름다운 추억으로 잊지 못할 사람들 그리고 저자의 약력과 연구논문에 대한 소개가 있다. 왜 그가 의사의 길을 택했으며 그중에도 Virus를 또 Cancer(Prostate) Research를 왜 하게 됐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환자들의 절망적인 불치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해주려고 하는 목표와 마음을

그는 늘 가슴에 품고 있었다. 생명을 경외하는 사랑과 휴머니즘이 그의 90평생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담겨져 있음을 독자는 이 책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한편 그가 살았던 일본강점 시대와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그리고 그가 만난 훌륭한 스승님들, 특히 전염병학을 처음 우리나라에서 가르치시던 전종휘 교수님, 구강으로 한번 투여하는 Polio Vaccine을 개발한 Dr. Albert B. Sabin, 그리고 Dr. Joseph L. Melnick, Dr. William McD. Hammon, Dr. Robert J. Huegner에 드리는 소개와 감사의 말씀들은 요즘을 찾아보기 힘든 사제지간의 정을 새삼 느끼게 한다.

이 책을 읽으니 1966년 경에 본인과 전국의 대생 일부가 본과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정부에서 드러온 Sabin Polio vaccination을 하느라고 2-3주간 강의도 못 들으면서 학비를 벌기 위하여 변두리 지정 병원으로 그 집중을 어린 아이들에게 하러 다니던 기억도 떠오르게 한다. 이 vaccine의 덕택으로 이제 소아마비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퇴치된 질병이 되었다. 알고보니 이 약의 개발에 그 당시 임 선배님이 참여하였다. 우리는 JAMA에 실린 136페이지에 있는 표지의 사진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130-150 페이지에 달하는 칼라 사진들은 그 외에도 일어난 여러가지 일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특히 미국 Cincinnati, Ohio와 Pittsburg, PA에서 부인을 처음 만났던 젊은이들의 사랑이야기도 아주 상세히 적혀있고 그 이야기는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쓴 애정소설을 능가하는 아름다운 진술된 기록이다. 지난해에 사망하던 부인을 떠나 보내는 이야기는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배우자의 마지막 남은 고통의 시간을 그처럼 같이 나누면서 잘 보살피고 돌보는 훌륭한 남편의 모습을 우리는 우러러 보게 된다.

또한 임 선배님 부부께서 5남 1녀(한 명 딸은 입양)와 13명의 손자손녀를 최고의 교육과 사랑으로 미국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육성하신 일과 부인의 평생 소원인 The Winchester School을 창설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일인 것을 독자는 알 수 있다. 물론 부인이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임 선배님의 외조가 있어서 가능했을 것이다.

며칠 전 나와 함께 이 책의 출간을 축하해드리려고 온 친구 이사구(문리대 61입학) Rhee, Sue Goo PhD 교수(NIH Scientist, 연세대, 이화여대 생명과학 연구소 창설자) 와 임선배님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책에 실린 논문들을 보니 그 업적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논문 한 편 발표를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었을까? 흔하디 흔한 인생은 짙고 예술은 길다라는 유혹의 말로 예술가들이



김기형 (상대 75)

祝祭의 꿈

No Me We altogether go hand in hand for our dream We have a dream A Dream of Holy City A Dream of highest Culture and Soul 和光而同塵 우리 모두 조금씩 다른 웃을 입고 손에 손 잡고 함께 같이 나아가갈 순 없을까? III Yes! We sometimes collide, conflict, confront, But, After all we congregate around Gene Kim of Koreatown full of energy and dynamics, in the heart of Angel City, Now, You open it up for children and their future 'cause it's your final mission, relaying batons to younger generations We know where our children will be in 100 years and beyond. A dream city. A Holy one of highest virtues and spirits. "Korea City in America" Someday "It Will Come True" 'cause it's our destiny. 大夢之先覺 平天共知果 9,000년 紅山文化 倍達의 民族 오랜 神市의 꿈 "Korea City in America" Viva Los Angeles, Vive La K-town, Vive La Gene Kim, Vive La Korea 千歲 배달민족, Koreatown 만세! 奮山 정인환 侯秀 김기형	Many a sorrow you must have swallowed Where lives were thrown into this far west land You Pioneers have led us through all the rains and all the winds, through thick and thin 風雨同舟 同甘同苦 진주보다 더 고운 당신의 땀방울 Most perilous voyage you must have endured Where our brothers and sisters are waiting up From the other side of the ocean How could we disremember the home even in dreams? 世路少知音 何日時歸鄉 어려운 人生航路 그 누구 그 흐느낌 들으랴만 꿈엔들 잊으리요 두고온 고향 Through diligence and resilience You transcended the Pacific Ocean To a festival of 45 years old resonating with the Angel City, #1 Immigration Avenue, clean and vibrating round the dock 推羅城門 濟弱扶傾 祝祭之夢 축제의 꿈, 30만 하나 되어 활기 넘치는 올림픽대로 함께 달리는 꿈을 당신들은 이루었다오 II Yet We still have A Dream A Dream of Holy City beyond this town Passing the stars and stripes Travelling crisscross to cities and villages across the continent 'cause that's the only way we can promise tomorrow to our kids and their dreams 精金百鍊 百年樹人 맑은 인제는 백년 걸려 길러지는 법 지난 반세기 헛되진 않았지 자 이제 더 나아가야할 배달민족, 끊임없는 전진, 그래 이젠 우리의 속명 No Good No Evil, No Right No Left, No You
--	--

나 문학가들이 좋은 작품을 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위안을 얻는 것처럼 이런 Medical Science Researcher들의 논문은 오래도록 남아서 앞으로의 의학발전에도 밑거름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임 선배님의 Curriculum Vitae Part에는 유명한 세계적인 의학, 과학 집지에 올린 논문이 약 323편이 있다. 이런 업적을 남기는 이 두 과학자들의 얼굴을 이 날 대하면서 본인은 단순한 개업 의사로 정신 없이 평생을 지내던 나 자신이 어찌지 부

끄러워지고 머리를 숙이게 된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의학상이나 화학상의 수상자가 곧 될 수 있으리라고 나는 기대해본다.

참고로 이 책은 영문판이며 앞으로 Paperback으로 책이 나와 쉽게 보급이 될 것이며 Library of Congress Control Number: 2017914120 A virus Hunter-Johng S. Rhim, M.D.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 주소로 구입이 가능하다. Johng S. Rhim M.D. (jrhim@verizon.net)



최종현 (공대 99)

워싱턴주
2018 1월 SNU Forum

꿈, 환상, 그리고 착각:
시각 인식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

1. 들어가면서

“여전히 아름다우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등 으로 유명한 작곡가 유희열 씨의 원맨 밴드 토이(Toy)의 대표 곡들 중에 “좋은 사람” (2001년)이라는 곡이 있다. 경쾌한 멜로디에 반해 애절한 가사로 노래하는 중저음의 보컬이 일품인 곡이다. 이 곡을 부른 가수 김형중 씨는 사실 이 보다 8년전인 1993년 EOS라는 유로 테크노 음악을 추구하는 밴드의 리드 보컬로 데뷔하였지만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하다가, 이 곡의 객원 보컬로서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를 얻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아니, 사실 지겨울 정도도 많이 보인다. 내가 학부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분야’와는 거리가 먼 주류에서 떨어진 학문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당시 모교에서 인공지능을 강의하시던 교수님께서도 수업시간에 “인공지능은 심 수년째 ‘유망하기만 한’ 분야로, 미래 전망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 말이다. 인기라는 것이 부질 없기도 하거니와 일시적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요즘의 인공지능의 인기는 상전벽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김형중 씨의 보컬이 재조명을 받을 때 보다 훨씬 더 강한 spotlight를 받으며, 미래 기술의 핵심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대중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던 김형중 씨의 EOS 밴드의 1집 앨범 제목은 상당히 실형적이었던 동명의 수록 곡과 같은 “꿈, 환상 그리고 착각”이다. 수 년이 지난 뒤 재조명 받았던 김형중 씨처럼 새롭게 각광 받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분야의 ‘꿈, 환상 그리고 착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2. 꿈

인간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싫어한다. 가능하면 이런 일을 피하고 싶어서 다양한 공리를 한다. 작게는 식사 후 게임을 통해서 설거지 당번을 정하거나, 크게는 세탁기를 발명하여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20세기 초 전기 세탁기가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세기 중반,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지능도 컴퓨터로 모사하여 하기 싫은 일들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담론이 폭넓게 논의되면서 ‘인공지능’도 하나의 분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가 한다.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의 실존 인물인) 앨런 튜링이 1950년에 쓴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는 논문에서 제시한 ‘튜링 머신’이 인공지능을 가진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으로 여겨지며, 이후 1956년에 존 매카시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분야가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간

단한 형태의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졌고, 금방이라도 인공지능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1966년에는 MIT의 Seymour Papert 교수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여를 방학 동안 학생 한 명과 마무리 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에 이른 다 (The summer vision project, <https://dspace.mit.edu/handle/1721.1/6125>)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시스템은 원하는 만큼의 성능이 나



오지 않았고, 다른 연구자들도 성능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70년대 초, 수년을 투자한 뒤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미국의 많은 정부 편입 기관들은 인공지능 연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서, 결국 예산의 대부분을 삭감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이른바 ‘1차 인공지능 겨울 (First AI Winter)’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공지능 연구 (특히 음성인식 시스템)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다. 수많은 규칙을 사람이 일일이 정의해 놓은 ‘Expert system’이 컴퓨터 부품을 주문하는 과정을 자동화 하는데 성공하면서 1980년대 초 일본에서의 Expert System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모든 규칙을 하나하나 모두 입력해야 해서 다양한 일에 확장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not scalable). 결국 1984년 Marvin Minsky가 AAAI 연례 학회에서 곧 다가올 AI산업계의 몰락을 예측했는데, 3년이 지난 1987년 (당시 AI 시스템을 작성하는데 가장 널리 쓰인) Lisp 프로그래밍 언어로 동작하는 소위 ‘Lisp 기계’를 만드는 수 조원 규모의 산업계가 몰락하면서, 두번째 ‘인공지능 겨울 (Second AI Winter)’이 찾아온다. 두 번의 겨울을 경험한 학계와 산업계는 인공지능 연구에 매우 조심스러워졌고, 발전 속도가 심각하게 둔화되었다.

한편, 두번째 겨울이 오기 직전 1986년에 D. Rumelhart와 G. Hinton이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또는 NN, 인공 신경망 또는 뉴럴넷)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Back propagation을 제안했다. 이 방법은 복잡한 데이터를 잘 학

습할 수 있는 다층 구조의 대용량 뉴럴넷을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지만, 당시 컴퓨터의 성능과 저장 공간의 한계로 작은 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단층 구조의 소형 뉴럴넷 밖에는 만들 수 없었다. 3년이 지난 뒤, Yann LeCun이 back propagation을 다층 구조의 뉴럴넷에 적용하여 손으로 쓴 숫자를 매우 높은 정확도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나서야,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뉴럴넷이 좋은 성능을 내는 예를 찾긴 했다. 게다가 뉴럴넷은 주어진 학습 데이터(training data)를 잘 학습하긴 하지만, 주어진 데이터 외의 입력에 대해서는 좋은 예측 값을 내놓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기계 학습) 커뮤니티의 외면을 받았다. 머신 러닝 연구는 주어진 데이터 외의 입력에 대해서 더 좋은 예측 값을 내는 (이를 ‘일반화’ (generalization) 라고 한다) 모델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뉴럴넷은 ‘일반화’ 성능 측면에서 좋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주류 머신 러닝 연구에서 밀려났다. 그러는 사이 1990년대와

성능에도 불구하고 인식 성능의 기본이 되는 ‘충실한 데이터 모델링’에 집중하였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하드웨어를 받아들여 꾸준히 성능을 개선하고 있었다.

2012년은 뉴럴넷 연구진들에게 잊지 못할 한 해였을 것이다. 인공지능 연구 커뮤니티, 특히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 분야는 SVM의 한계에 부딪혀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뉴럴넷 커뮤니티가 초고속 연산 시스템과 대용량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나와서, 컴퓨터 비전과 음성 인식 분야에서 이제로 여겨지던 물체 인식과 화자 독립형 음성 인식 분야에서 놀라운 성능 개선을 보였다. 2009년부터 물체 인식 커뮤니티는 1,000개의 물체를 구분하는 벤치마크 문제인 ImageNet Challenge를 해마다 열고 있었다. 매년 발표되는 새로운 이미지 변환 기술과 SVM의 변종들은 해마다 1% 남짓한 인식 성능의 개선을 이루어 내고 있었는데, 2012년 뉴럴넷 커뮤니티가 대용량 다층 구조 뉴럴넷 (Deep Neural Network)으로 전년 대비 10% 가까운 개선을 내면서 커뮤니티에 일대 돌풍을 일으켰다. 심지어 이 모델은 복잡한 이미지 변환도 필요없이 원본 이미지만을 가지고 이루어낸 성능 개선이었고, 모델의 많은 부분에서 상당부분 튜닝을 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많아서 큰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2012년을 기점으로 모든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 -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 는 이 Deep Neural Network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능개선이 이루어졌다. 뉴럴넷 연구자들의 오랜 꿈과 믿음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3. 환상

2012년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의 부활의 가능성을 본 많은 연구자들은 이 오래되었지만 저평가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Yann LeCun이 뉴럴넷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첫번째 응용 분야는 손으로 쓴 숫자 인식 태스크였고, 이는 시각 인식을 다루는 컴퓨터 비전 문제 중 하나이다.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를 다루는 분야 특성상 입력으로 주어지는 데이터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3개의 인공지능 하위 분야 중 딥-뉴럴넷을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견된 많은 기술 중 일부가 다른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둑에서 상대방에게 이기기 위한 수를 찾아내는 AlphaGo 알고리즘이다.

동양 문화권에서 바둑은 어려운 논리 문제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난한 두뇌 게임이다. 많은 수의 바둑 세계 챔피언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사실에 나 역시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몇 년 전 영국의 한 start-up (Deepmind Technologies, 구글이 2014년 인수)이 만든 실험적인 알고리즘에 우리의 자부심이 챔피언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는 일은 충격 그 이상이었다. 이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둑은 고차원적 인간 지능의 대명사 -> 이를 알고리즘이 이겼음 -> 이제 컴퓨터가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을 가질 수도 있겠다”고 걱정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 생각한다. 게다가 이런 생각에 응답이라도 하듯, 수 많은 업체들은 다투어 ‘인간 보다 훌륭한 얼굴 인식 시스템’, ‘인간 보다 정확한 지문 인식 시스템’, ‘인간 보다 사



정태영 (문리 71)

완장찬 대학가

윤홍길의 완장(1983년 작)을 원작으로 한 TV 드라마 '완장'에서는 애교녀치마 코믹이라도 있다. 완장을 차고 저수지를 건넌건담거리며 눈을 부라리며 낚시꾼들을 쫓아보는 주인공은 그래도 무식하지만 무식함에서 배어나오는 순박함 때문에 그리 공포스럽지는 않았다. 코믹스러운 배우의 연기 덕이기도 했다. 그런데 완장을 찬 사람이 설치는 사회가 살벌하다면 어떨까?

필자는 돌아가신 선친으로부터 625때 겪은 남한 이야기를 들었다. 3개월 동안 공산치하를 겪었던 때의 이야기였다. "그 당시엔 거리에 나가면 말이지 좌우 걸 논길도 하지 않고 앞만 보고 똑바로 걸었지! "결논길을 하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 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자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와, 그런 세상에 숨막혀서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한다. 눈 발 필자 자식을 서울로 보낼 때는 우골탑이라고 불렀다. 지난날 한국 방문시 연세대 교정에 들어선 기분을 완장탑, 아니면 노조 현수막탑이었다.

익숙한 연세대 정문을 지나자 낯설은 살벌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노조 현수막이 도배를 하고 있었다. 처음엔 하나 둘 정도 이

고를 덜 내는 자율 주행 시스템' 등을 선보이며 이 같은 우려가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

또한 당 시대의 저명한 작가들도 정교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AI의 미래 상에 대해 다양한 담론을 내놓았고, 대부분은 인간이 기계에 지배당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1991년에 개봉한 영화 터미네이터2, 1993년 Vemor Vinge의 The Coming Technology Singularity 등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매우 우울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들이 그 좋은 예이다.

4. 그리고 착각

그렇다면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곧 인간을 지배하게 될까?

바둑을 비롯해 인공지능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자세히 보면 비교적 잘 정의해 놓은 편협한 문제인 경우가 많다. 이를 테면, '정면 얼굴의 모습을 보고 이름과 연결하는 얼굴 인식', '조명을 일정하게 비추는 장치에서 일정한 각도로 촬영한 지문을 이름으로 연결하는 지문 인식', '한정된 집합의 문장을 인식하는 자연어 기반 음성 인식'이 그것이다. 이 잘 정의된 문제들은 일반적인 '얼굴 인식', 일반적인 '지문 인식' 보다 매우 제한적인 환경을 가정 하고 있으며, 이 가정하에 개발된 알

겟거나 했는 데 거의 1 km나 되는 정문에서 대학 본부까지의 중앙 대로 좌우 연변에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걸어 가면서 내용을 보니 같은 내용을 붙이고 또 붙이고 들셋 건너 또 붙여 놓았다. 막강한 위세를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연세대 교정의 특색은 정문에서 대학 본부까지의 길이 일직선으로 곧게 펼쳐져 있어 베르사이유 궁전이나 워싱턴 물을 연상시키는 구조이다. 이 도로를 끼고 좌우로 각종 단과 대학이나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길은 말 그대로 중앙대로이다. 연세대의 상징이다.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그 길을 다닌다. 그 길 좌우로 노조의 현수막이 빈틈없이 걸려 있었다.

어떤 완력의 흐름이 느껴졌다. 마치 불리

(bully)가 꼭 지배한 느낌이었다. 교실이나 학교에서 강파가 설치되면 학생들은 하고 싶은 말 꼭 참고, 아니참지만 견디어 내고, 재수없이 못매 맞지 않으려고 겉으로 아무일 없는 듯이 지낸다. 지난번 방문한 연세대 교정이 그랬다. 현수막은 노조에 관한 것이었다.

"지성의 전당 대학이 저질 일자리 양산! 아르바이트 투입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수천억 적립금 놓고 임금인상 무력화 꿈수? 청소/경비노동자 인원감축 중단하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이어 정당의 플라카트가 계속되었다. 정당이 주는 묘한 권력의 상징은 마치 그들이 완장 찬 진주군進駐軍 처럼 보였다.

캠퍼스 주요 간선 도로 곳곳에는 완장 대신 눈에 딱 띄는 조끼 유니폼을 입은 건장해 보이는 중년들이 교통 정리를 하고 있었다. 손에 짧은 봉을 들고 횡단 보도에서 오가는 사람과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다. 노조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완장찬 교내 감시 자처럼 보였다. 순진한 학생들은 고개 숙여 걸어가고 있었다. 방문자들은 찌푸린 결눈질을 하고 있었다.

서양에서 17세기를 천재들의 세기라고 부른다. 갈릴레오, 뉴턴, 데카르트, 홉스, 로크, 섹스피어 등등 과학과 정치 사상, 철학, 문학의 금자탑을 쌓은 인물들이 이 시대를 빛냈다. 이들은 아반과 독단에 갇혔던 중세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근대에 밝은 빛을 던졌다. 현대 문명예의 주춧돌을 놓았다. 이들의 삶을 읽다보면 흥미로운 점이 눈길을 끈다. 일부 사상가들이 자기 나라에서 핍박받으려 하면 도망치듯 네덜란드로 망명했다는 사실이다.

데카르트나 로크는 이곳에서 주요 저작을 집필했다. 근대 철학의 문을 열게 해 준 '방법서설' 미국 독립의 정신적 원천이었던 '정부론'이 모두 이곳에서 탄생되었다. 네덜란드는 따뜻한 나라가 아니다. 4개월 겨울과 8개월의 추위가 계속되는 나라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굳이 네덜란드를 택한 이유는 '생각의 자유' 때문이었다. 소수자에게 관대하고 교회와 다른 주장을 내세운다고 해서 종교 재판을 받거나 화형을 당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완장찬 사람들이 눈을 부라리는 나라가 아니었다. 당시 유럽은 종교전쟁으로 핏물이 들었고,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는 목이 날아가던 시절이었다.

학문의 전당은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로운 영혼이 떠오르는 창의력이 충만된 대학 분위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노조가 정신나갔다. 정 현수막을 걸고 싶거든 어느 한 구석 건물에 조용히 하나 정도만 거는 것이면 족할 것이다.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지만, 무엇을 계산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를 푸는 데에 성능 좋은 계산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맺음말

최근 인공지능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면 다양한 미래가 그려진다.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고성능의 하드웨어와 모뎀화된 소프트웨어 기술들은 지루한 일들을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인공 지능'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산업혁명에 비유되어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런 비약적인 생산 효율성 증대의 과도기에서는 현재의 기술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효율성 증대의 범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더 정확한 미래를 그려내고 준비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올바르게 준비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아직도 용광로에 들어가기 직전 자신의 소멸을 슬퍼하는 존 코너의 눈물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터미네이터 T-800이 이해한 인생의 가치와 소멸해가는 순간에 존 코너에게 엄지손가락을 세워 준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Research Scientist, 앨런 인공지능 연구소 (Allen 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2)



최중고 (법대 66)

필 벽과 한국, 서울대인

필 벽(Pearl Sydenstricker Buck, 1892-1973)이라면 '대지(The Good Earth)'로 노벨상을 받은 미국 여성소설가로, 좀더 나아가 한국을 무대로 한 소설 '살아있는 갈대(The Living Reed)'를 썼다는 사실 정도로 알 것이다. 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한국인은 너무 건방짐을 과시했고, 서울대인도 예외가 아니다.

필은 선교사의 딸로 중국에서 40년간 살다 모택동과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1934년 미국으로 돌아갔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 중국방문에 동행하려다 중국의 비자거부로 비통 속에서 이듬해 서거했다.

한편 1960년 이래 여덟번이나 한국을 방문하여 특히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의 혼혈아들을 위한 '희망원'을 세우는 등 깊은 애정을 기울였다. 여사는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동서화해를 위해 소수자의 인권을 줄기차게 주장한 행동가였다. 백악

관 만찬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잘못된 한국관을 즉석에서 시정해주는 용기도 보였다. 첫 방한은 419혁명이 난 1960년 11월 1일이었는데, 윤보선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울, 대구, 경주, 부산을 일주하면서 혁명 후 지친 인이 제 몫을 하지 않으면 중국처럼 공산주의가 득세한다고 역설했다. 8월에는 서울대 음대 강당에서 환영음악회를 가졌고, 국립극원도 방문하였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면서 한국명을 최진주(崔珍珠)라 했고, 1972년에는 국회에서 이해량 문공위원장 명의로 노벨 평화상의 후보로 추천했다.

제2의 '대지'로 쓴 '살아있는 갈대'는 한 마디로 소설로 본 한국 근현대사 내지 독립운동사이다. 장정록(1924-1994) 모교 영어영문학과 교수에 의해 처음에는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라' 번역된 이 대화소설은 첫 마디

가 이렇게 시작된다. "한국은 고상한 민족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이다(Korea is a gem of the country inhabited by a noble people)". 여사는 중국에서 여운형, 미국에서 유일한 강용홀, 그리고 한국의 모윤숙, 김말봉, 박화성, 한무숙, 문명자, 최진영 등 여성 문인들을 통하여 한국의 사정을 공부했다. 리처드 킴(김은국)도 신뢰하는 한국인이었다. 이런 인연으로 2006년에 부천에 필벽기념관이 세고, 작년에는 부천이 동아시아 유일의 유네스코 국제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됐다. 앞으로 원대한 계획들이 전개될 전망이다.



의 필벽심포지엄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여사가 그렇게 애정을 기울인, '고상한 민족의 보석 같은 나라'인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모습은 오늘날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 고상한 국격(國格)과 인격(人格)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이런 근원적인 의의를 귀찮다고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가? 누구보다 서울대인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가 필 벽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우선 중앙도서관에는 필 벽의 저작과 연구서가 제대로 구비되어야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지년간 최근의 역사를 복원해 보다 의미있는 현재와 미래의 활력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모교 법대 명예교수, 대학원동창회장 [출처: 총동창회보]



이경희 (약학 52)

학림다방과 마리오네트

그리고 백자항아리

종로 5가에서 미싱자수학원을 하고 있을 때였다. 총 평론가인 조동화 선생이 찾아와서 "이경희 씨, 학림다방을 사세요." 설명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조동화 선생은 나의 대학 선배로 늘 나에게 좋은 말을 전해 주곤 하는 분이였다.

선배의 계속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2층에 있는 '학림다방' 보다는 1층에 더 관심이 갔다. 1층에 인형극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럽의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마리오네트(인형극)공연을 보았

을 때 어쩌나 그 공연이 환상적이고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지 우리나라 어린이도 이런 공연을 보며 정서를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하면서 '동서양의 사고로 활용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작년 10월 한국필벽연구회를 창립하였고, 오는 9월에는 미국에서

마침내 나는 선배의 권유에 따라 학림다방의 주인이 되었고, 1층은 '마리오네트(줄 인형극)라는 이름의 식당으로 세를 주었다. 그리고 2층 학림다방을 '커피숍'이라고 하겠다는 것을 '학림다방'이라고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나의 말뜻을 알아듣고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동송동의 '학림다방'이 그렇게 되어 오늘날까지 실천할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

'동송동의 사랑방, 학림다실 문 닫아... 동송동 캠퍼스시절에 대학촌의 사랑방노릇을 했던 학림다실이 26일 저녁 문이 안으로 굳게 잠겼다. 허름한 2층 건물인 학림다실이 새 주인을 맞아 2층은 카페와 전시실로 바뀌고 1층은 인형극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제 옛 대학촌의 마지막 유물적인 학림다실마저 문을 닫게 되니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1982.5.31. 대학신문)

학림다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밝히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건축가인 고 김수근 씨가 죽음을 앞둔 병실에서 문병을 간 나에게, 학림다방 입구에 네모 조형물을 세워 그곳에 백자항아리를 놓여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하라고 스케치 한 장을 그려주었다. 내가 스케치를 보고, 백자항아리를 사람들이 가져 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것을 길가에다만

들어 놓게 하느냐고 하니, "왜 도둑 맛을 생각부터 해요? 거리를 아름답게 하면 사람들도 마음도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가져가면 또 새로 갖다 넣으면 되지 않아요? 내 집 앞을 위해 그 정도는 투자해야지요."

나는 김수근 씨가 그려준 스케치대로 농



축조형 위에 유리 장을 만들어 백자항아리를 사다 놓았다. 과연 지나가는 사람들은 조형물 앞에 서서 둥근 백자항아리를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곤 하였다.

그 일은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한 5개월 가까이 되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백자항아리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네모 유리장 안의 백자항아리가 사라졌는데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았다. 얼마 동안이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미소 짓게 했다는 것이 나의 마음을 흐트하게 했기 때문이다. 발길을 멈추고, 학림다방 앞에서 미소를 짓고 간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놓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 그때, CCTV가 없었는지?

수필가 [출처: 총동창회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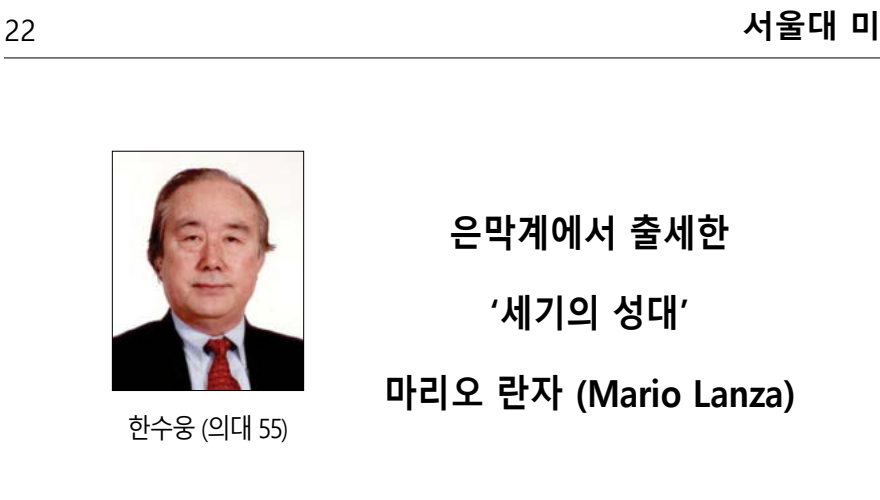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품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세요. <편집부>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7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은막계에서 출세한

‘세기의 성대’

마리오 란자 (Mario Lanza)

한수용 (의대 55)

마리오 란자 (1942년)

오페라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는 마리오 란자를 지칭하여 “20세기의 최대의 테너였다”고 말하고, 호제 카레라스는 “내가 오페라 가수가 된 것은 마리오 란자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린때 스페인에서 란자가 주연하는 영화 ‘위대한 카루소’를 보면서 란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말하였다. 이런 ‘세기의 성대’ 마리오 란자도 음악계 및 은막계의 가지각색의 구설수에 올랐다. 그가 헐리우드 은막계를 거쳐 오페라 가수로 입신하였다는 점이 다른 많은 가수들과 특이한 점이다.

1942년 8월 헐리우드에서 공연할때 MGM사장 마이어(Louis B. Mayer)에 발탁되어 그는 곧 MGM과 7년 영화계약을 맺었다. 이때 계약에 의하면 6개월만 촬영소에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오페라 및 연주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그는 생각하였다. 대단히 큰 착각이었다. 그는 오페라 가수로 연마되기전에 영화배우로 입신하고 말았던 것이다.

1948년 그는 뉴올린스 오페라극장을 위하여 푸치니의 ‘나비부안’의 주연 핑클턴으로 출연하여 극찬받았다. 그 다음 해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MGM의 바쁜 촬영 스케줄에 억매어서 그 오페라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알프레도역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였다. 그는 점차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MGM의 지휘자 그린(Johnny Green)은 마리오 란자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의 음성은 카루소 다음인데 그는 대단히 특수한 음질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1948년 그는 뉴올린스 오페라극장을 위하여 푸치니의 ‘나비부안’의 주연 핑클턴으로 출연하여 극찬받았다. 그 다음 해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MGM의 바쁜 촬영 스케줄에 억매어서 그 오페라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알프레도역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였다. 그는 점차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MGM의 지휘자 그린(Johnny Green)은 마리오 란자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의 음성은 카루소 다음인데 그는 대단히 특수한 음질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1948년 그는 뉴올린스 오페라극장을 위하여 푸치니의 ‘나비부안’의 주연 핑클턴으로 출연하여 극찬받았다. 그 다음 해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MGM의 바쁜 촬영 스케줄에 억매어서 그 오페라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알프레도역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였다. 그는 점차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MGM의 지휘자 그린(Johnny Green)은 마리오 란자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의 음성은 카루소 다음인데 그는 대단히 특수한 음질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1948년 그는 뉴올린스 오페라극장을 위하여 푸치니의 ‘나비부안’의 주연 핑클턴으로 출연하여 극찬받았다. 그 다음 해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MGM의 바쁜 촬영 스케줄에 억매어서 그 오페라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알프레도역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였다. 그는 점차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MGM의 지휘자 그린(Johnny Green)은 마리오 란자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의 음성은 카루소 다음인데 그는 대단히 특수한 음질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1948년 그는 뉴올린스 오페라극장을 위하여 푸치니의 ‘나비부안’의 주연 핑클턴으로 출연하여 극찬받았다. 그 다음 해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MGM의 바쁜 촬영 스케줄에 억매어서 그 오페라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알프레도역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였다. 그는 점차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MGM의 지휘자 그린(Johnny Green)은 마리오 란자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의 음성은 카루소 다음인데 그는 대단히 특수한 음질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1948년 그는 뉴올린스 오페라극장을 위하여 푸치니의 ‘나비부안’의 주연 핑클턴으로 출연하여 극찬받았다. 그 다음 해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MGM의 바쁜 촬영 스케줄에 억매어서 그 오페라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알프레도역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였다. 그는 점차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MGM의 지휘자 그린(Johnny Green)은 마리오 란자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의 음성은 카루소 다음인데 그는 대단히 특수한 음질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1948년 그는 뉴올린스 오페라극장을 위하여 푸치니의 ‘나비부안’의 주연 핑클턴으로 출연하여 극찬받았다. 그 다음 해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MGM의 바쁜 촬영 스케줄에 억매어서 그 오페라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알프레도역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였다. 그는 점차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MGM의 지휘자 그린(Johnny Green)은 마리오 란자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의 음성은 카루소 다음인데 그는 대단히 특수한 음질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1948년 그는 뉴올린스 오페라극장을 위하여 푸치니의 ‘나비부안’의 주연 핑클턴으로 출연하여 극찬받았다. 그 다음 해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MGM의 바쁜 촬영 스케줄에 억매어서 그 오페라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알프레도역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였다. 그는 점차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MGM의 지휘자 그린(Johnny Green)은 마리오 란자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의 음성은 카루소 다음인데 그는 대단히 특수한 음질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1948년 그는 뉴올린스 오페라극장을 위하여 푸치니의 ‘나비부안’의 주연 핑클턴으로 출연하여 극찬받았다. 그 다음 해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MGM의 바쁜 촬영 스케줄에 억매어서 그 오페라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알프레도역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였다. 그는 점차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MGM의 지휘자 그린(Johnny Green)은 마리오 란자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의 음성은 카루소 다음인데 그는 대단히 특수한 음질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1948년 그는 뉴올린스 오페라극장을 위하여 푸치니의 ‘나비부안’의 주연 핑클턴으로 출연하여 극찬받았다. 그 다음 해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MGM의 바쁜 촬영 스케줄에 억매어서 그 오페라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알프레도역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였다. 그는 점차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MGM의 지휘자 그린(Johnny Green)은 마리오 란자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의 음성은 카루소 다음인데 그는 대단히 특수한 음질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1948년 그는 뉴올린스 오페라극장을 위하여 푸치니의 ‘나비부안’의 주연 핑클턴으로 출연하여 극찬받았다. 그 다음 해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MGM의 바쁜 촬영 스케줄에 억매어서 그 오페라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알프레도역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였다. 그는 점차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MGM의 지휘자 그린(Johnny Green)은 마리오 란자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의 음성은 카루소 다음인데 그는 대단히 특수한 음질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1948년 그는 뉴올린스 오페라극장을 위하여 푸치니의 ‘나비부안’의 주연 핑클턴으로 출연하여 극찬받았다. 그 다음 해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MGM의 바쁜 촬영 스케줄에 억매어서 그 오페라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알프레도역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였다. 그는 점차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MGM의 지휘자 그린(Johnny Green)은 마리오 란자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의 음성은 카루소 다음인데 그는 대단히 특수한 음질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1948년 그는 뉴올린스 오페라극장을 위하여 푸치니의 ‘나비부안’의 주연 핑클턴으로 출연하여 극찬받았다. 그 다음 해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MGM의 바쁜 촬영 스케줄에 억매어서 그 오페라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알프레도역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였다. 그는 점차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MGM의 지휘자 그린(Johnny Green)은 마리오 란자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의 음성은 카루소 다음인데 그는 대단히 특수한 음질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1948년 그는 뉴올린스 오페라극장을 위하여 푸치니의 ‘나비부안’의 주연 핑클턴으로 출연하여 극찬받았다. 그 다음 해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MGM의 바쁜 촬영 스케줄에 억매어서 그 오페라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알프레도역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였다. 그는 점차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MGM의 지휘자 그린(Johnny Green)은 마리오 란자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의 음성은 카루소 다음인데 그는 대단히 특수한 음질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1948년 그는 뉴올린스 오페라극장을 위하여 푸치니의 ‘나비부안’의 주연 핑클턴으로 출연하여 극찬받았다. 그 다음 해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MGM의 바쁜 촬영 스케줄에 억매어서 그 오페라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알프레도역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였다. 그는 점차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MGM의 지휘자 그린(Johnny Green)은 마리오 란자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의 음성은 카루소 다음인데 그는 대단히 특수한 음질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1948년 그는 뉴올린스 오페라극장을 위하여 푸치니의 ‘나비부안’의 주연 핑클턴으로 출연하여 극찬받았다. 그 다음 해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MGM의 바쁜 촬영 스케줄에 억매어서 그 오페라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알프레도역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였다. 그는 점차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MGM의 지휘자 그린(Johnny Green)은 마리오 란자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의 음성은 카루소 다음인데 그는 대단히 특수한 음질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1948년 그는 뉴올린스 오페라극장을 위하여 푸치니의 ‘나비부안’의 주연 핑클턴으로 출연하여 극찬받았다. 그 다음 해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MGM의 바쁜 촬영 스케줄에 억매어서 그 오페라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알프레도역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였다. 그는 점차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MGM의 지휘자 그린(Johnny Green)은 마리오 란자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의 음성은 카루소 다음인데 그는 대단히 특수한 음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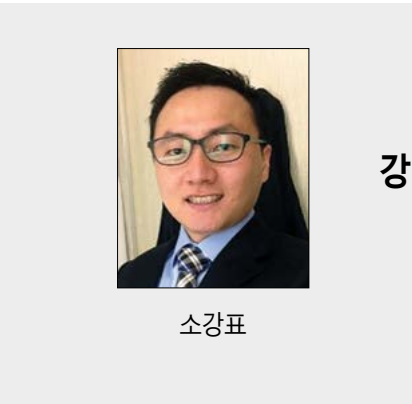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1948년 그는 뉴올린스 오페라극장을 위하여 푸치니의 ‘나비부안’의 주연 핑클턴으로 출연하여 극찬받았다. 그 다음 해에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MGM의 바쁜 촬영 스케줄에 억매어서 그 오페라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알프레도역을 제대로 연출하지 못하였다. 그는 점차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MGM의 지휘자 그린(Johnny Green)은 마리오 란자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았다. 그의 음성은 카루소 다음인데 그는 대단히 특수한 음질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소강표

MIT에서 연구원으로 있으지도 어느덧 5년째가 되었다. 여기 오래있으니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생기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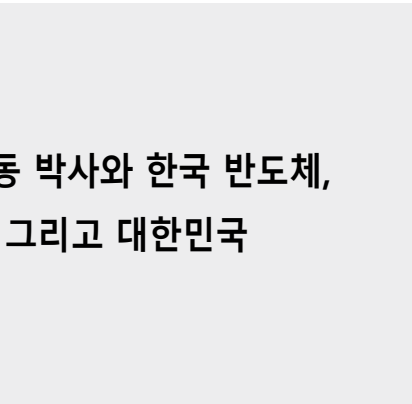
3월 31일, 세미나 주제는 “대한민국의 반도체의 태동” 강기동 박사님의 세미나였다. 평소 나름의 산업 흐름에 관심이 있고 일 정도 토요일 오후라 크게 부담되지 않았어 참석하였다. 강연회장에서 뵈 강기동 박사님은 이미 연세가 있으셨다. 그분은 차분히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분은 미국에서 개발하셨던 반도체 CMOS 양산기술을 어떻게 한국으로 전해주셨는지에 대하여 설명해주셨다. 강연 시간은 한시간 가량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오랜시간의 경험들을 설명하는 것은 부족해 보였지만 최선을 다해가시며 설명하셨다.

그분은 1960년대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때는 반도체라는 개념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던 시절이다. 전공관에서 반도체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벨 연구소에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강박사님은 반도체에 가능성을 알고 산업화에 이바지 하고자 모토로라라는 생산공장에서 개발책임자로 일을 하시고 반도체가 제품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집적기술에 대하여 집중연구를 하셨다. 그 결과로 CMOS 기술이 개발되었다. CMOS는 반도체의 집적 공정기술으로 반도체 발견 다음으로 반도체가 실생활에서 응용할수 있도록 생산해내는 기술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자칫하면 흥청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런점에서 마리오 란자는 완전히 독특하다. 그는 어떤 형식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1948년까지 그는 리릭 테너였다. 그리고 1949년 이후부터 리릭 스피노로 전환하였지만 그의 ‘세레나데’ 음반에는 막강한 헬덴 테너로 나타나고 있다.

강박사님이 개발한 CMOS기술은 모토로라를 통해서 TI, fair child, Intel등으로 전파

되어 보자. 전형적인 리릭 테너는 루이지 알바(Luigi Albi)나 벤아미노 질리(Beniamino Gigli)이다. 그러나 헬덴 테너는 레오 슬레작(Leo Slezak)이나 마리오 델 모나코(Mario del Monaco)처럼 풍부한 음성을 잘 조화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리릭 스피노는 리릭음성을 크게 밀어내면서 발생하므로 밀어내는데 힘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자칫하면 흥청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런점에서 마리오 란자는 완전히 독특하다. 그는 어떤 형식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1948년까지 그는 리릭 테너였다. 그리고 1949년 이후부터 리릭 스피노로 전환하였지만 그의 ‘세레나데’ 음반에는 막강한 헬덴 테너로 나타나고 있다.

그를 흔히 ‘카루소 2세’라고 부르는데, 카루소의 음성은 바리톤 영역까지 깊숙히내려오



강기동 박사와 한국 반도체, 그리고 대한민국

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분야와 반도체의 높은 가능성을 알아본 박사님은 조국에 기술을 전하고자 하셨다. 이제 전쟁을 지나왔고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있었고, 풍족하지 않았지만 어린시절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이 살아가는곳, 산악회 활동으로 전국토를 누볐던 곳, 나와 함께 꿈을 키워나가며 동문수학했던 대학 동기들과 우리를 따라 또 다른 꿈을 키워나가 후배들이 있는 조국을 위하여 이 기술은 반드시 전해야 했다. 조국에 기여하는 것은 부친의 유언이고 간절한 염원이기도 하였다. 회사에서 일을 했기에 누구보다도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시한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근대 산업의 불모지였다. 어떤 것도 쉽게 진행되진 않았다. 또 하나 강 박 사님의 손발을 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강 박사님의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반도체를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미사일에 들어가는 고급 기술이었고 이미 강 박사님은 국방성 프로젝트에서도 관심이 집중되었었다. 전해들은 바로는 당시 미사일(minuteman1)은 들어가면 전공관은 총격에 약했고 업그레이드 미사일(minuteman2)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총격에는 강했으나 특정 종류의 방사능에 아주 취약했다고 한다. 강기동 박사님이 개발한 기술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그런 군사적인 공로는 정보누출과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강 박사님의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국에 기술을 전하고자 하는 시도는 갈수록 난항이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시절을 놓치면 한국의 산업은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것도 힘들어지고 고되고 있겨왔던 가난도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마치 영화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국에 기술 이식 과정은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다. 바로 한국으로 갈 수가 없으니 미국에서 기술자들을 양성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기술

자들은 한국에 보내어 한국에서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한국에 반도체 산업에 토대가 되었고 회사를 설립하고 생산라인까지 가동하여 미국에도 뒤떨리지 않도록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초기 열정과 맘을 담은 회사는 삼성에게 까지 전해졌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당시 또 한명의 대한민국 기업가인 현대 정주영 회장을 만났다. 남은 힘을 다하여 반도체개발 및 메모리 사업과 관련한 본인이 지식과 경험을 구상하여 전하였다. 꼭 해내야한다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정주영 회장은 그것을 토대로 현대반도체를 만들었고 후에 현대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 로까지 이었졌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 또 다른 동경 구상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전폭적인 투자로 메모리 부분 등에 막대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기술을 국가 발전을 위한 염원으로 한국에 전해졌고, 반도체의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그 작은 도화선의 불은 지금 한국 국가 산업의 기반이 되고있는 반도체 및 전자산업으로 이어져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 당시 강 박사님은 자신의 모든 열정과 젊음, 그리고 할 수있는 모든 경제적 지원을 다하여 하얗게 태웠다. 때로는 상처도 많았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던 순간들도 있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나를 너무도 괴롭혔던 사건들과 때때로 의견이 맞지 않아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함을 아쉬워 하긴 했지만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면서 안도하신다.

미국으로 돌아온 강 박사님은 흑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한국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셨고 냉전시대에 고통을 너무 잘 아시기에 움추리며 생활을 위해 무전기 등을 수리하시며 살았다고 하신다. 미국에서 그렇게 계시던 오랜 시간동안 때로는 힘겨울때는 가끔씩 후회와 한탄이 될 때도 있었다면서 인간적이고 솔직한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월은 야속하게도 젊은 시절 멋진 장발을 하시고 건강했던 강박사님을 머리가 빠진 백발의

노인으로 만들었고, 언제나 새로운 영웅만을 찾아 나서던 한국은 그렇게 오래된 영웅을 잊어버렸다. 삼성반도체의 초대 사장도 하였던 그분이 과연 한국인 강기동인 아닌 Steve나 James로 태어났다면 무전기 수리공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스티브잡스나 아이폰슈타인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됐을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

그분은 세미나가 끝나고도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으셔서 지금 나와같은 후학을 보며 또렸한 눈빛과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신다. 기술 발전은 국가 발전의 근원이 되고 그 과정에서 좌절은 끊임없이 찾아온다. 일을 하다보면 적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른다. 가장 가까이 일 수도 있고, 혹은 가장 신뢰하고 있는 사람일 지도, 그렇게 동료가 되기도 하고 혹은 나를 탄탄히 지켜주고 밥을 잘 알고 도와줬던 사람이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막을 수 없다. 그냥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기술발전)을 꾸준히 가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일어나서 나아가라고. 기술 개발과 사업으로 오랜 경력에서 나온 얘기이다. 그런 갈등에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이 인생을 허비하는 방법인 듯하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를 위해 달려 하셨다.

교수도 아니고, 아직은 가야할 길이 머나먼 나에게 본인의 혼신을 다하여 실패해 주셨다. 너무도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 그렇게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숨겨진 거장이 이미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그 동안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주셨다.

지금 핸드폰을 쓰고, 노트북을 사용하고 모든 기술적인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오늘의 나는 그렇게 아무런 준비없이 대한민국의 3차 산업의 토대를 닦았던 역사적인 거장을 아무런 준비없이 마주하고 왔다.

Dr. Kang Pyo So is a post-doctoral associate in the Department of Nuclear Science & Engineering a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He received his Ph.D. at Sungkyunkwan University in 2012. He was post-doctoral fellow at the Institute of New Paradigm of Energy Science Convergence in SKKU in 2012-2013.

즐이기 위하여 로마의 한 클리닉에 입원하여 과소망치한 체중줄이는 요법을 받던중 갑자기 사망하였다. 그 때가 1959년 10월7일이었다. 그의 나이가 겨우 38세였다. 폐경색증과 심장마비가 사망의 직접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토스카니니는 그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음성”이라고 지칭하였다. 사실, 그는 은막계에서 출세한 ‘세기의 성대’라기보다 오히려 은막계에서 흑시당하다못해 퇴출당하고나서 비통하게 생을 마친 ‘비운의 성대’였던 것이다.

마리오 란자의 생가는 636 Christian Street, Philadelphia에 있고, 패밀리 집안에 서 있다. 그리고 The Mario Lanza Institute and Museum은 712 Montrose Street, Philadelphia 에 세워졌다.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을 상대로 출연하였는데 이때 뉴욕타임즈(1942년 8월 9일)의 로즈펠드(Jay C. Resenfeld)는 “미미(Ima Gonzalez)와 로돌포(Mario Lanza)의 음성도 특출하게 아름다웠지만 각자의 역에 대한 해석도 대단히 명료하였다”고 호평하였다.



조화유 (문리 61)

가난한 대학생의 꿈

요즘 옛날 일기를 읽고 있다.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4학년 졸업반 때인 1964년 9월6일 일기장엔 만년필로 쓴 글과 그림이 있다. 그때 나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서울대 뒷산에 있는 단칸 셋방에서 60대 노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언덕 길을 내려가 학교로 가는 길에 누군가가 아주 큰 양옥집을 짓고 있었다. 그 공사장을 지나칠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집에서 살았을 날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옆 동네에 어느 못 많은 과부가 팔려고 짓는다는 궁궐 같은 양옥들을 볼 때마다 ‘나도 돈을 벌어야지하는 생각이 간절. 내가 앞으로 지을 집을 마음속으로 설계해 보기도 한다.’

54년 전의 나의 꿈은 35년 만에 이루어졌다. 1999년 나는 미국 수도 워싱턴 교외에 위 사진과 같은 빨간 벽돌집을 지었다. 옛날 일기장에 그린 그대로는 아니지만, 지하실까지 치면 3층집인데, 침실 4개, 화장실 4개, 서재, 2층 높이의 넓은 거실, 부엌, 식당, 간이식당, 자동차 2대가 들어가는 차고가 있다. 앞마당과 뒷 정원을 포함한 대지

면적은 약 1 acre (약 4000 제곱미터)이다. 이만한가 가난한 대학생 시절 꾸었던 집에 대한 꿈은 이론 셈이다. 조선일보 기자생



활을 하다 1973년 여름 Western Michigan University 유급조교로 혼자 미국에 와서 대학 기숙사에서 살다가 6개월 후 아내와 두 아이가 뒤따라 와 기혼학생 기숙사로 옮겨가 살았다. 그러다가 Los Angeles로 가서 한

글신문(미주동아) 기자 노릇하며 월세 주는 아파트에 살았다.

그 때 신문에 “미국생활영어” 칼럼을 매일 썼는데, 그것이 인기가 있어 1년만에 책으로 묶어냈더니 문자 그대로 불티나게 팔려



이 집에서 나는 지금도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미국 5대 도시에서 발행되는 한글 신문에 “미국생활영어” 칼럼을 쓰고 있고, 가끔 영문과 한글로 쓴 단편소설도 발표하고 있다. 또 Facebook을 통해 전세계 거주 동포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가난한 대학생 시절 꿈꾸었던 집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 행복하다. 그러나 우리 조국이 격변기에 처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2018년 이른 봄, 워싱턴에서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다음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링크된 곳으로 이동해서서
“동창회비 납부”를 누르시고,
해당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75 (2017. 7 ~ 2018. 6)	<input type="checkbox"/> \$240 (2017. 7 ~ 2018. 6)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50 (2017. 7 ~ 2019. 6)	<input type="checkbox"/> \$480 (2017. 7 ~ 2019. 6)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3,000 (중신이사회비)	일반 광고 문의: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 _____		general@snuua.org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재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u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전회장단 이월금	서울메디칼 (3/15) 1,000	최수강 (의대) 100	강정수 (문리 62) 125	최종권 (문리 59) 200	김영남 (의대 61) 200
	손재욱 (가정 77) 500		이성형 (공대 57) 150		김태환 (법대 48) 200
	47,347.11		김유범 (의대 54) 200		김현영 (수의 58) 100
	(11/29) 6,511.97		한상봉 (수의 67) 240		배성호 (의대 65) 100
총동창회 보조금	한남체인(3/15) 1,000	뉴욕 3,000		김군빈 (법대 56) 75	서경희 () 100
		북텍사스 550		박우선 (공대 57) 200	신성식 (공대 56) 200
	3,000	샌디아고 550		임춘수 (의대 57) 200	손재욱 (가정 77) 500
총동창회 오찬 협찬	나눔	시카고 2,400			송영두 (의대 56) 500
	김창화 (미대 65) 25	알라스카 200			김영남 (의대 61) 200
	윤상래 (수의 62) 500	워싱턴주 600			김현영 (수의 58) 100
	황선희 (공대 74) 100	조지아 600			배성호 (의대 65) 100
	3,000	커네티컷 200			서경희 () 100
업소록 광고비	모교발전기금	캐롤라이나 200			신성식 (공대 56) 200
	권기현 (사대 53) 1,000	테네시 200			김태환 (법대 48) 200
	심상은 (상대 54) 25	필라 1,500			김현영 (수의 58) 100
	유재환 (상대 67) 125	하와이 300			배성호 (의대 65) 100
	김창수 (약대 64) 240	하트랜드 300			서경희 () 100
	남옥현 (경영 84) 480				신성식 (공대 56) 200
	박종호 (의대 79) 240	후원금			김태환 (법대 48) 200
	서동영 (사대 60) 240	남가주			김현영 (수의 58) 100
	신동국 (수의 76) 240	김 영 (수의 63) 500			배성호 (의대 65) 100
	신응남 (농대 70) 240	김영순 (음대 52) 525			송영두 (의대 56) 500
	신혜원 (사대 81) 240	이준구 (농대 60) 1,100			김영남 (의대 61) 200
	엄달용 (공대 69) 240	이재원 (법대 60) 350			김현영 (수의 58) 100
	엄동해 (농대 74) 240	이준행 (공대 48) 2,000			배성호 (의대 65) 100
	윤세웅 (의대) 240	이문수 (의대 60) 1,100			서경희 () 100
	이경림 (상대 64) 480	이전구 (농대 50) 2,000			신성식 (공대 56) 200
	이병준 (상대 55) 480	이재원 (법대 60) 350			김태환 (법대 48) 200
	이종모 (간호 69) 240	이준행 (공대 48) 2,000			김현영 (수의 58) 100
	이준영 (치대 74) 240	정인식 (상대 58) 200			배성호 (의대 65) 100
	정정우 (수의 74) 240	정창동 (간호 45) 100			서경희 () 100
	정재훈 (공대 64) 240	한재은 (의대 59) 500			신성식 (공대 56) 200
	주기목 (수의 68) 240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김태환 (법대 48) 200
	지흥민 (수의 61) 240	서동영 (사대 60) 200			김현영 (수의 58) 100
	김일영 (의대 65) 240	오인환 (문리 63) 200			배성호 (의대 65) 100
		김연화 (의대 62) 6,000			서경희 () 100
		이병준 (상대 55) 1,000			신성식 (공대 56) 200
		정창동 (간호 45) 100			김태환 (법대 48) 200
		한재은 (의대 59) 500			김현영 (수의 58) 100
		수재민 돕기 후원금			배성호 (의대 65) 100
		윤상래 (NE) 300			서경희 () 100
		정정욱 (NE) 200			신성식 (공대 56) 200
		고일석 (NE)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문소 (NE) 100			김현영 (수의 58) 100
		김연화 (음대 68) 200			배성호 (의대 65) 100
		신응남 (NY) 200			서경희 () 100
		손재욱 (PA) 1,000			신성식 (공대 56) 200
		황선희 (PA) 200			김태환 (법대 48) 200
		합계: 2,400			김현영 (수의 58) 100
		장학금			배성호 (의대 65) 100
		김동훈 (법대 56) 100			서경희 () 100
		김은섭 (의대 53)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현희 (의대 57) 100			김태환 (법대 48) 200
		박용걸 (약대 56) 150			김현영 (수의 58) 100
		심상은 (상대 54)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유재환 (상대 67) 100			서경희 () 100
		SeAh 이병준 1,500			신성식 (공대 56) 200
		SNUAA, Inc (남가주) 5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승호 (공대 71) 400			김현영 (수의 58) 100
		노명호 (공대 61) 1,000			배성호 (의대 65) 100
		발전기금 (12/6) 700			서경희 () 100
		서울대병원 강남 (12/29) 1,5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김태환 (법대 48) 200
					김현영 (수의 58) 100
					배성호 (의대 65) 100
					서경희 () 100
					신성식 (공대 56) 200</

동창회비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2차 회기까지 모두 내신 분

Table with 10 columns listing members and their payment status. Columns include member names, university/department, and payment status (e.g., '납부', '미납').

동창회비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2차 회기까지 모두 내신 분

Table with 10 columns listing members and their payment status. Columns include member names, university/department, and payment status (e.g., '납부', '미납').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7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광고

Pancom 광고기획
김영민 (농대 72)
Tel:(213)427-1377 / youngkim@pancom.com
3701 Wilshire Blvd. #800, LA, CA 90010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Haitai Inc.

정정우 (수의 74)
Tel.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ACCU Construction, Inc.

엄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규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KMAX

유창호(약대 74)
Tel. 213-381-3200
814 S. Alvarado St. LA. CA 90057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오흥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모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
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P.O. Box 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동물병원 / 치과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신윤남 변호사

신윤남(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240 Grand Ave Suite 2 Leonia NJ 07605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D-VA 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MD-VA 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n.com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봉사직들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광고문의: 978-835-0100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학,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시요.
<편집부>

7월 15일(수) 14:00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시요.
<편집부>

KCC News kccnews.net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News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과 크리스천 문화활동을 취재보도하는 Internet Media.

각 지역 서울대 동문들의 문화활동 정보 바랍니다.

남미, 아프리카등 8개국 선교지 11회 방문취재

권문웅(미대 61) moonk206@gmail.com T.973.600.0834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치)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수석 부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옥 (의), 김문소 (수) Corporate Counselor: 신응남 (농)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황보민영 (공), 강은주 IT Consulting Team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김정현 (공) 편집 위원: 이정수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김제성 (공), 배지선 (수), 장수인 (음), 정태영 (문), 이영인 (사), 윤용훈 (공), 허유선 (가정), 홍선례 (음), 한정민 (농)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위원장: 김정현 (공)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광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홍 (법), 이석구 (문), 이원영 (인), 이재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회칙 위원회: 위원장 한재은 (의)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중민 (공), 이강원 (공), 이민연 (법), 함은선 (음)
SN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사회 봉사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수)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미주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강신용 (사대 73)	213-380-1600	aamkocpa@gmail.com	Feb-Jan
	차기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이대영 (문리 64)	516-770-0070	dyllyl88@hot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박영철 (농대 64)	781-674-2498	youngpark6@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윤은상 (상대 66)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ek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480-209-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호숙 (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423-1055	sejinsong@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재봉 (인문 88)	760-585-8396	jebong20@yahoo.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홍혜례 (사대 72)	773-896-7987	hyerye.h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승주 (간호 69)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래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안선미 (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근 (자연 82)	703-785-8467	saekewn@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tiinc94@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석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박해란 (음대 84)	215-499-0320	helen4music@hotmail.com	Jul-Jun
	차기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차기회장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통 (상대 70)	713-206-1942	k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제27차 평의원회의 축하 모교 음대 국악과 합동 연주회 개최
Crowne Plaza Boston-Natick, 2018년 6월 16일 (토)

제27차 평의원회의에는 모교 음대 국악과에서 5명의 동문이 방미하고 보스톤 NEC 졸업을 앞둔 김도연 동문과 합동연주를 한다. 어린 동문들의 연주로 국악의 진수를 맛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큰기대가 되고 있다.

6월 16일 (토) 만찬 후에 연주하게 될 국악연주곡들은 민요, 산조, 판소리 등의 민속음악과 듣기편한 퓨전음악연주를 들려주게 된다.

연주자:
김도연(가야금10학번) 신지희(거문고13) 이현준(대금11) 윤희림(해금07) 김수연 (북, 장고14) 정세연(판소리05) 등

[제공: 장수인 부회장]

詩: 골프 인생

1. 치는 법을 배움

골프를 치려거든 치는 법을 배우시게
팔과 어깨 목에서 힘을 주욱 뽑으시고
백 수잉은 천천히 공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고개를 들지 말고 외아들에 정성 쏟듯
하얀 공에 정성 들여 다운스윙도 천천히
스~슬쩍 찰싹 하고 내려치는 느낌이라.

2. 예의를 지킴

골프를 즐기려면 예법부터 배우시게
이세상에 신사놀이가 이만한 것 또 있을까?
말조심, 서는 자리, 앞서가고 뒤 서는 것
내 파트너 잘 칠때엔 칭찬일랑 잊지 말고
내 파트너 실수할 땐 그 실수가 내것인듯
내 친구만 이웃인가? 건너 동네도 이웃일세
호떡집에 불 안났네 말소리는 조용조용
실례가 많아 지면 친구들이 멀어지네
나를 슬프게 하는것 중 이것 또한 으뜸이라
잘못된 모든 일은 그 모두가 내 탓이며
라이벌은 누구인가! 바로 "나"자신일세.

3. 실패를 극복

골프를 치다 보면 청개구리 "공" 이란놈
곰배팔이 팽이 친듯 좌측으로 우측으로
오줌 맞은 두꺼비가 웅덩이로 뛰어 들 듯
돌 팔때에 놀란 토끼 숲속으로 도망가듯
골프인생 우리인생 실수 투성이 아니런가!
관운장도 실수 하여 조조에게 잡혔듯이
이것들이 그 모두가 병가상사 아니겠소?
낙담일랑 하지말고 초연함을 잃지 말게
이번 실수 교훈삼아 새 성공을 기대 하소.

4. 과욕은 금물

핸디를 줄일려면 서두르지 마시게나
열 여덟개 기회 있고 일흔두번 기대 있네
조금 더 내 보낼까 팔과 목에 힘을 주니
"공"이란놈 자~알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누나
상쾌하게 날아가는 공을 한번 바라볼까!
머리를 번쩍 드니 썹크 뿔이 나는구나
한번 실수 두번 실수 누구라고 아니 하나!
전 흠에서 잃은 것을 지금 당장 찾으려고
욕심을 내어서는 공이 알고 도망 가네
"항우"장사 실패하여 "유방"에게 잡혔듯이
"동탁"이가 실패하여 "여포"에게 죽었듯이
과욕으로 인한 실패 실수 아닌 "업보"라네.

5. 운영의 묘

골프를 잘 치려면 나온 거리 남은 거리
수학 문제 풀어가듯 계산부터 하신 후에
풀 길이가 길었는가? 장애물은 어디 있나?
그린 위에 팔락이는 핀을 슬쩍 노려본 후
분수에 맞는 채를 꺼내 깊은 호흡 한번 쉬고
마음부터 비운 후에 투~욱 하고 내려 치면
공이란 놈 날아가서 그린 위에 꽂인다네.

6. 정직함

골프를 즐기려면 이세상에 무엇보다
정직 보다 중요한 것 그 어디에 있을소나?
풀섶에 숨은 공을 발로 차서 꺼내 놀까?
아무도 안보니까 공을 한 개 놓고 칠까?
모든 유혹 떨쳐버려 있는 그대로 올려 보세
자기 것을 계산 하고 내가 나를 감독 하고
백에라도 단 한번쯤 자기 양심 속일 때엔
"공"이란 놈 먼저 알고 숲 속으로 도망가네.

7.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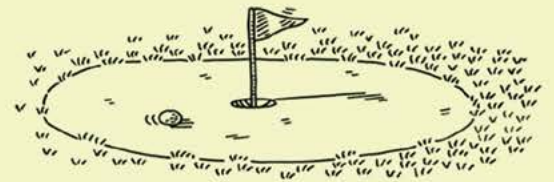
골프를 잘 치려면 운도 또한 기다리세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
그대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한 후에
과욕은 극복하고 마음만 차분~하면
팔과 다리 허리 머리 오장육부 조화 이뤄
기적 같은 동작들이 이따금씩 나타나서
날아가는 새도 잡고 홀인원은 못할 소나?

8. 건강

이렇게 하여 열 여덟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몸에서는 싱그러운 풀 냄새가 향기롭고
푸른 하늘 님은 마음 한량없이 상쾌 하네
엔돌핀은 축적되고 백혈구도 많아지고
혈액순환 순조로워 혈압도 두~기 떨어져
허리뼈가 시큰시큰 이따금씩 아픈 증세
목욕 한번 하고난 후 씻은듯이 없어 졌네.

9. 가정

온종일 나 혼자서 좋은 시간 가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아내 골프 과부 만들었네
당신도 골프 배워 우리 함께 건강 하여
검은 머리 파뿌리 되어 한 백년을 살아 보세
미안한 맘 금치 못해 혼잣말로 중얼 중얼
운전일랑 조심하고 고속으로 가지 마소!
천사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우리 새끼
저녁 밥상 차려 놓고 아빠 오기 기다리네.



NEW YORK GOLF CENTER

www.nygolfcenter.com

HERALD SQUARE



131 West 3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el: 212.564.2255

GRAND CENTRAL



100 Park Avenue (Entrance on 40th)
New York NY 10017
Tel: 212.564.0078

CHELSEA PIERS



59 Chelsea Piers
New York NY 10011
TEL: 212.242.8899



詩人: 이전구(李典九)
1964년 서울대 농대 졸업
뉴욕골프센터 그룹 회장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9대 회장
미동부 한국문인협회 14대 회장